

한국 청소년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이 현 진

한국 청소년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지도 김 희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이 현 진

# 이현진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희권 

심사위원 지선하 

심사위원 장영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년 6월 일

## 감사의 말씀

논문을 마치고 '감사의 글'을 접하고 보니 지난 대학원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학업과 직장,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쳤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치 있는 발전과 발돋움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제 주위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논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저의 지도교수님인 김희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유익한 지도 편달을 해주셨던 지선하 교수님, 장형윤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열정 그 자체로 대학원 과정을 이끌어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준 동기들과 틈틈이 힘내라며 응원해 주었던 건강증진교육학과 동기생들, 선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학교업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특히, 논문학기에 많은 힘과 조력자가 되어준 안미애, 김현주, 김지애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저희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무한한 사랑으로 어려울 때 항상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고 언니를 위해 늘 기도하며 이해해준 사랑하는 나의 동생 현송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가르침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 진 올림

# 차 례

국문요약 .....	vii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II. 문헌고찰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	7
2. 외모만족도 .....	8
3. 자아존중감 .....	10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	13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	17
2. 연구대상 .....	18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	20
4. 분석방법 .....	23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	24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양상 .....	27
3. 외모만족도 양상 .....	32

4. 자아존중감 양상 .....	37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관계 양상 .....	43
V. 고찰 .....	71
참고문헌 .....	81
부록 .....	102
Abstract .....	111

##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학교정보 .....	19
<표 2>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	26
<표 3>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분포 .....	27
<표 4>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	29
<표 5>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	31
<표 6>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분포 .....	32
<표 7>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	34
<표 8>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	36
<표 9>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포 .....	37
<표 10>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	39
<표 11>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	42

<표 12>	남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	43
<표 13>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	44
<표 14>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	45
<표 15>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	46
<표 16>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	47
<표 17>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	49
<표 18>	남학생의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	52
<표 19>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	53
<표 20>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	57
<표 21>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	58
<표 22>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분석 .....	60
<표 2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분석 .....	62
<표 24>	경로분석 모형의 직접, 간접, 총 효과 .....	65

<표 25> 남학생에게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 67

<표 26> 여학생에게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 70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틀 .....	17
<그림 2> 연구변인 경로분석 .....	64

## 국 문 요 약

### 한국 청소년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마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 신체 불만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집단, 학교 등 4가지 사회화 요인을 통하여 외모의 사회적 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시기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외모 관련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는 보고되었으나, 또래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변인인 또래와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체형인식 및 만족도,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신체부위 만족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중도 포기를 제외한 총 1,0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AS 9.2 ver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측정변인 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특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와 외모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성형태도에 있어 여학생의 92.42%가 성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남녀학생 모두 긍정적 평가는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성을 부정적 평가는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셋째, 외모만족도는 여학생에 있어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높을수록,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집단일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평가는 여학생에 한해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대한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을 해소하면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 개입,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핵심어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성적 성숙과 인지적 발달, 정서적 불안정 시기를 경험하며, 인간관계의 확대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경희, 2012). 또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와 생활공간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미지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청소년이 갖는 지위와 역할의 모호성과 그들의 생활세계가 갖는 주변적 성격, 소속집단의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 신체적·성적 성숙과 심리적·사회적 미성숙 간의 불균형,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 학업 등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민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갈등과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한상철 등, 1998). 이런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외적 발달적 적응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청소년 시기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의미 있는 타인 및 다양한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Coopersmith et al., 1967).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임지혜, 2011). 이러한 발달과업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청소년기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와 특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매스미디어, 부모, 또래 집단, 학교 등 네 가지 사회화요인을 통하여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

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시기이다(Featherstone, 2010).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일차적 생식기관이 성숙되고 이차적 성적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적으로 성인의 수준에 달하는 성기능의 발달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자기 평가 또는 타인의 지지 없을 때 자신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주경숙, 2011).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는 외모를 통해 상대의 인상을 평가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또래들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서윤경, 2003). 이와 같이 외모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자신감을 갖고 또래들 간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성미영, 2011).

권민경(2010)은 이러한 외모에 대한 기준은 매스컴을 통한 사회문화적 풍조의 확산으로 정상범위의 체중에 속하는 사람들까지 현재의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혹은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Wardle, Haase, & Steptoe(2006)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국가의 여성들은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체중에 대한 염려를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의 문화 규범은 초기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마른 몸매와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를 갖추는 것이 인간으로써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자아인식의 중점 정의 요소로 여기도록 만든다. 젊은 여성들의 외모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 측정방법에는 이상적인 몸매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신체 불만족이 높은 취

약점이 있다. 신체 불만족은 외모, 감정적 고통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집착과 체형을 바꾸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임상적 거식증을 초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연관이 있다(Neumark-Sztainer et al., 2006). Page et al.(2012)의 최근 연구 결과는 아시아 여성들과 자신이 이상적이라 여기는 몸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여성들에게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이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태국 청소년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예를 들면 식이조절, 설사제 복용)를 하고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신체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자신을 뚱뚱하다고 자각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유럽 소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태국의 소녀들은 친구들에게 식이조절 또는 체중 조절의 압박이나 종용을 받고 있으며, 체중을 줄이기 원하고,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Helfert와 Warschburger(2011)는 사회적 압박이 부적절한 신체상을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외모 중심의 환경”으로써 체중과 신체 외모의 사회적 압박이 높은 곳을 사회문화적인 환경으로 표현하였는데, 한국은 다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외모 중심주의로 인해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써 잠재성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외모중심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신체상을 염려하도록 하며, 신체 불만족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 사용과 같은 위험에 놓이도록 한다.

사회적 영향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를 이해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상적인 미의 기준과 외모 관련 사고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의 단적인 측면은 또래 친구들과 부모님들로부터 오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다. 사회적 압박은 누군가의 외모, 외모 규범과 사고방식, 친구들과의 외모에 대한 대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로부터 오는 모델링으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

와 활동을 제외하고도,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비판,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외모에 관한 소견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Helfert & Warschburger, 2011). 그러나,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몸무게와 외모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다(Page & Suwanteerangkul, 2007).

청소년들의 사회적 압박의 형태,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TV미디어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이미숙, 2000; 김재숙 외, 2001), TV시청과 육체이미지(윤태일 외, 2002),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송미현, 2004), 체형인식과 식생활 행동 및 자아존중감(노영경, 2005; 김들련, 1995),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최선영, 2005), 체형인식과 체중조절태도(강금주, 2005; 류호경, 2005; 남궁미자, 2003; 류호경 외, 1999; 이요원 외, 1998), 대중매체 노출과 신체상 지각 및 신체 존중감(장희순 외, 2006),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및 식행동(김지은, 2008; 김지연, 2006; 이지은 외, 2006; 이희정 외, 2005; 김은정, 2004), TV드라마 노출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인식(김은이, 2011) 등 다수가 있으며, 주로 텔레비전 및 미디어의 등장인물에 근거한 사회적 압박의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미숙, 2000; 김재숙 외, 2001; 윤태일 외, 2002; 장희순 외, 2006; 김윤, 2007; 김은이,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텔레비전 및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김은이(2011)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로 반복된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신체 불만족으로 인하여 인격 형성과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모와 또래에 의한 압박과 외모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대상을 부모와 또래로 삼은 이유

는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모와 또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 중시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기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 형성과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의 보편 교육안 마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모와 또래의 압박에 의한 외모인식과의 관계를 밝힐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주변인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확인한다.
- 2)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3)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4)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II. 문헌고찰

###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홍금희(2006)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개인의 이상적인 미(美)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Richins, 1995).

Bandura(1977)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사회문화적 영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주관적, 사회적으로 인식하며(김유경, 2007),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의식과 자신감의 결여로 다른 생활영역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김경아,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요인’과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 및 내면화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인 ‘내면화요인’으로 구성된다(2011, 김은이). 여기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각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이미숙, 2000). 청소년기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내면화한 결과로 비현실적인 미를 사회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에 대한 인지적 성향을 높인다(조선명, 2001).

청소년기에는 사회문화 영향에 의해 날씬하고 마른체형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따라하려는 모방심리가 강하므로, 왜곡된 미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주목하여 청소년 대상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때(최선영, 2005),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정순, 2009).

## 2.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전체 혹은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고애란 외, 1996; Cash, 1990; Secord & Jourard, 1953), 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일컫는다(Harrison & Cantor, 1997; Morrison, Kalin, & Morrison, 2004).

Cash(1994)는 외모만족도의 범위에 대해 신체상이라는 자신의 현재의 신체 모습에 대한 만족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최민호, 2006). 사람들은 흔히 외모에 근거해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데,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 대해 더 너그럽고, 큰 신뢰를 보내며, 호의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Barocas & Karoly, 1972).

사회비교 이론에서 외모 만족을 설명할 때는 ‘대비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대비효과’는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통해서 나타난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사람들은 자신의 체중, 몸매,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Jones, 2004; Festinger, 1954). 만약 비교대상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향비교’, 비교대상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하향비교’가 일어난다(Berg, Paxton, Keery, Wall, Guo, & Neumark-Sztainer, 2007; Groesz, Levine, & Murnen, 2002; Festinger, 1954).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마른 여성 혹은 근육질의 남성의 신체와 상향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신체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Lorenzen, Grieve, & Thomas, 2004).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체형을 자주 비교하게 되면, 이상적인 기준과 실제의 자신과의 불일치 외모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가치와 외모만족은 감소하게 된다(Lorenzen, Grieve, & Thomas, 2004; Durkins, & Paxton, 2002).

이러한 경험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얻게 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 형성, 성격 형성, 대인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주경숙, 2011).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 변화와 신체성장을 급격히 경험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더욱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관리한다(백인혜, 2013). 청소년들이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청소년에게 신체적 매력이나 신체이미지는 긍정적 자기평가, 인기, 친구들과의 관계와 중요한 관련이 있으며(Davison & McCabe, 2006), 자아존중감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Frost & McKelvie, 2004).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김양진, 강혜원, 1992), 청소년기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 이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윤진, 1993; Kostanski & Gullone, 1998). 청소년들에게 신체이미지는 자아발달에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문화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다(이재창, 1994). 유인애(2011)는 신체이미지가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기 청소년의 대부분은 광고매체 속 이상적 몸매를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면서 신체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홍종필, 이시연, 2005), 부정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

하고 있다(허은실, 2003; 김양진, 1996). 이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상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허은실, 2003).

### 3.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변인으로(김세리, 2007),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균, 2004; 문승완, 2008).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 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곧 자아존중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조미라, 2011).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제임스(William James, 1890; 서봉연, 1975)는 자아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William James, 1890)’으로 보고, 자아를 인지하는 자아 즉 경험적 자아인 ‘me’로 구분했다. 그는 자아란 인간이 그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즉 그의 신체, 특성, 능력, 물질적 소유, 가족, 친구, 직업 등 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urphy(1947)는 자존감을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개인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과 관계되는 스스로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라고 보고, 내적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기 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 존중감이란 개인 자신을 유지하고 평가하는 가치판단이면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Felkers(1974)는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를 소속감(sense of belonging)과 능력감(competent feeling), 가치감(worthwhile feeling)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이미현, 2008). Elkind & Winer(1978)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미영, 1999).

Atwater(1992)는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이라고 정의하였다.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미영, 1996).

Tice(1993)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욕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였다(이선희, 1999).

Erikson(1963)은 청소년의 특징을 정체감 위기로 진단하면서 청소년을 삶의 의미와 ‘되어야 할 자기모습’,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에 대한 느낌을 확립을 위해 갈등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Erikson(1963)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인 하나의 인격으로서 자신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용현선,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능동적이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Harter, 1993), 모든 일에 활동적이고 자기표현을 잘 하며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였다(이미자, 2004; 오송남,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거부, 자기불

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송인섭, 1998), 소심하고 억압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이미자, 2004; 오송남, 2003).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경향이 높고(심희옥, 1998), 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약물남용이나 우울증, 비행행동, 자살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탁영란·이은영, 2004).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아정체성 정립 시기인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자아존중감 형성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성장할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의 역경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기반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

####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모, 또래 등의 인간관계와 미디어, 문화생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청소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정옥분, 2004). 급격한 미디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는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외모관련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어진다.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사회적 기준으로 내면화 되고 있으며, 개인의 외모에 집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이정순, 한경희, 2008). 여아의 경우, 바비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인형과 같은 외모를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이상화하게 되며(Levin, & Smolak, 1996), 청소년기에 와서는 이러한 메시지의 역할을 인터넷이나 TV등의 미디어가 하게 되고 이상화된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미디어를 통한 비교를 위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를 가지게 된다(신효정, 2002).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김재숙·이미숙, 2001), 미디어를 통한 연예인 모방행동이 높을수록 신체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 노출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미숙, 2000; 신미영, 1997). 미디어는 개인을 비롯한 각 집단에게 내용이나 기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그 사회의 기준으로서 압력을 가하는 일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김정민·한근희, 2008). 특히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에 노출도가 높을수록, 문화형성에 미디어가 가지는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크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1). 또한 미디어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사회화시키고, 무의식적으로 미디어의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게 함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외모평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호정, 2000).

기존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미디어 노출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이미지를 잦대로 삼아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높으며, 자신의 외모와 '상향비교'를 통하여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개인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외모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황윤정(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와 인식은 모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현정숙(2007)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Sinclair(2006)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많아지면, 이상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할 때 자신들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다(안나영, 2007). 이러한 부정적 신체경험은 신체불만족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상선, 오경자, 2003).

한국청소년 개발원(200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외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하였고 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써 또래가 외모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은 또래와 외모비교를 사용하며, 청소년기의 또래는 친구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외모와 신체기술에 있어서 또래집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친구로부터의 동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외모의 특징은 사회와 동년

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조성아, 1991).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Abell & Richards, 1996; Davison & McCabe, 2005; Stower & Durm, 1996; 김양진, 1992; 송미현, 2004;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김은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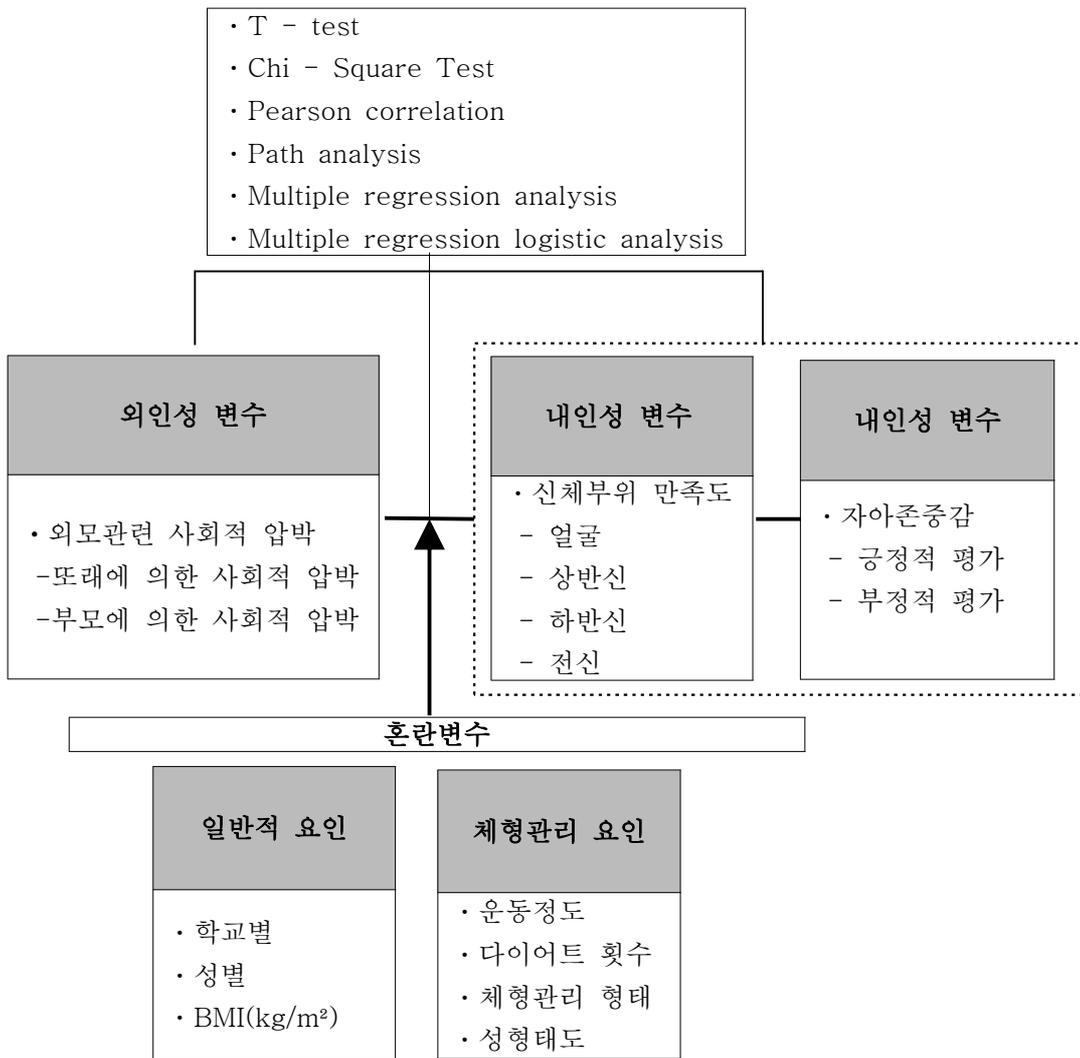
Mahoney & Finch(1976)는 외모적 매력성이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말하고 있다. Wright(1989)에 의하면 청소년기 여학생의 신체적 자존감이 남학생의 신체적 자존감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 Duke-Duncan(1991)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체중에 가장 민감하며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지숙(1992)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에 있어 외모에 의해 평가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통제기제의 하나인 외모주의(Lookism)의 영향을 받아 외적인 매력에 매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비우호적이거나 왜곡된 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Heinberg & Thompson(1992)은 미디어는 외모와 자아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미디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회적 비교과정을 거쳐 개인의 외모지각과 자아를 형성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김은경, 2005; 서윤경, 2005; 송미현, 2004). Rosenblum & Lewis(1999)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와 몸무게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자신의 신체외모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여학생들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존중감이 낮은 여대생들은 자아존중감도 낮았다고 하였다 (Mendelson, 2002). 박수정, 손정락(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Frost & McKelvie(2004)의 초등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이윤정(2004)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장선철, 송미현(2004)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전준선(2006)은 외모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고 있어 자신감이 뛰어나며 결국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 다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틀)



< 그림 1 > 연구의 틀

## 2. 연구대상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000명이며,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교, 학년, 신장, 체중,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을 조사하였다.

학교계열별 분포는 인문계열 325명(32.5%), 특성화계열 675명(67.5%)으로 특성화계열의 참여인원이 인문계열에 비해 2.1배 높았다.

성별은 남학생 222명(22.2%), 여학생 778(77.8%)명이었다.

### 2)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은 2013년 12월 3일에서 24일까지 3주 간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에서부터 대상선정, 회수까지 3개 학교 모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설문배분 시 1, 2, 3학년 학생 중에서 20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500부를 배부 및 설문 시행하였고, 서울시 J구에 위치한 J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학생 중 16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406부를 배부하였고, 서울시 Y구에 위치한 Y고등학교에서는 1, 2, 3학년 학생 전체 15학급에서 실시하여 총 410부를 배부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1316부 배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3개의 고등학교는 각각 서울시 K구에 위치한 K고등학교, 서울시 J구에 위치한 J고등학교, 서울시 Y구에 위치한 Y고등학교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의 유형은 인문계고 1곳과 특성화고 2곳이며, < 표 1 >에서 설문에 참여한 학교정보를 제시하였다.

배부된 총 설문 중 설문 참가 중도포기 및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00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 표 1 > 설문에 참여한 학교정보

학교명	계열	학년별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성별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K고	특성화고	209 (8)	191 (8)	196 (8)	26	24	25	311 (52.2)	285 (47.8)
J고	인문계고	355 (12)	393 (12)	457 (13)	29	32	35	677 (56.2)	528 (43.8)
Y고	특성화고	125 (5)	125 (5)	160 (5)	25	25	32	0 (0)	410 (100)

###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lfert & Warschburger(2009)가 또래와 부모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압박의 형태에 관하여 개발한 Fragebogen zum aussehensbezogenen sozialen Druck(FASD)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압박을 주는 대상을 또래와 부모로 분류하였으며, 또래에서의 하위영역은 또래에 의한 놀림 4문항, 또래에 의한 배제 4문항, 학교와 학급의 관례 4문항, 친구들에 의한 표준화 4문항으로 총 16문항이다.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또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부모에 의한 놀림 8문항, 부당함 5문항, 부모에 의한 격려 7문항, 부모의 외모에 대한 표준화 7문항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리커트 척도로 5점으로 점수화 했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 2점, “확실하지 않음” 3점, “대부분 동의” 4점, “매우 동의”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65에서 .82로 측정되었다.

## 2) 신체부위(외모) 만족도

Secord와 Jourard(1953)가 개발한 Body Cathexis Scale의 외모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느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추자(1984)가 변안한 도구를 기초로 김미옥(1997)이 사용한 문항 중에서 건강 상태 및 중복되는 신체의 세부적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고 102점에서 최하 1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모만족도의 하위영역은 얼굴만족도, 상반신만족도, 하반신만족도, 전신만족도이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89로 측정되었다.

## 3) 자아존중감 :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의 총 10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긍정적 자아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부정적 자아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도록 채점되었다. 전체 자아존중감 평가 시에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82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성형태도

성형태도는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마음의 상태와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측정 은 Shisslak(1999)이 개발한 McKnight Risk Factor Survey(MRFS) Grade 6-12를 사용하였으며, 성형에 대한 수용의 정도 측정을 위해서는 Herderson-King & Herderson-King(2005)이 개발한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ACSS)를 사용하였다.

첫째, MRFS의 구성내용은 성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 측정을 위해 몸의 변화, 미디어 모델링, 체중과 몸매, 또래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0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세부적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전혀 아님” 1점, “가끔” 2점, “자주” 3점, “매우 자주” 4점으로 점수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남자 .90-.92, 여자 .93-.94로 측정되었다.

둘째, ACSS의 총 15문항 중 미래에 성형수술을 고려할 가능성이나 수용하는 정도 측정을 위해서 수술고려정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님” 1점, “가끔” 2점, “자주” 3점, “매우 자주” 4점으로 점수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71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9-7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몸의 변화, 미디어 모델링, 체중과 몸매, 또래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우려, 성형수술 수용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태도의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따른 기술통계 자료는 평균  $\pm$  표준편차 (Mean  $\pm$  SD) 또는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에 따른 두 군 간의 연속형 변수의 비교를 위해서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두 범주형 변수의 관계성은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외모만족도·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Path Analysis를 시행하여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Chi-square test와 t-test를 통한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의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변량 회귀 분석 및 로지스틱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결과는  $p < 0.05$ 인 경우 유의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연구 대상 1,000명 고등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남자, 여자 두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 표 2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공은 특성화계열은 675명(67.50%), 인문계열은 325명(32.50%)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3개월 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은 남학생은 주당 1-2일이 97명(43.69%)으로 가장 많았고, 3-4일 55명(24.77%), 5-7일 36명(16.22%)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0(없음)이 333명(42.86%),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56%)순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1년간 다이어트 횟수는 남학생은 안함 160명(72.07%)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과반수인 463명(59.51%)이 1년간 다이어트 1번 이상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p < 0.0001$ ).

지난 30일간 금식은 여학생이 94명(12.08%)으로 남학생 10명(4.50%)보다 많았다( $p < 0.0001$ ).

지난 30일간 절식은 여학생은 451명(57.97%)으로 남학생 53명(23.87%)보다 많았다( $p < 0.0001$ ).

BMI( $\text{kg}/\text{m}^2$ )는 여학생이 BMI 18.5-22.9가 477명(61.31%)으로 많았고, 남학생에서는 BMI 25.0이상인 34명(15.31%)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p < 0.0001$ ).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학생은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108

명(48.65%)인 것에 비해 여학생은 719명(92.42%)이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학생의 다수가 성형수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001$ ).

< 표 2 >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속 성		남자 (%)	여자 (%)	전체 (%)	p-value
일반적 특성					
학 교	1	192 (86.49)	201 (25.84)	393 (39.30)	<0.0001
	2	30 (13.51)	295 (37.92)	325 (32.50)	
	3	0 (0.00)	282 (36.25)	282 (28.20)	
학 년	1	117 (52.70)	363 (46.66)	480 (48.00)	0.0907
	2	73 (32.88)	319 (41.00)	392 (39.20)	
	3	32 (14.41)	96 (12.34)	128 (12.80)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34 (15.32)	333 (42.86)	367 (36.70)	<0.0001
	1-2일	97 (43.69)	297 (38.22)	394 (39.40)	
	3-4일	55 (24.77)	96 (12.36)	151 (15.10)	
	5-7일	36 (16.22)	51 (6.56)	87 (8.70)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60 (72.07)	315 (40.49)	475 (47.50)	<0.0001
	1-4번	40 (18.02)	268 (34.45)	308 (30.80)	
	5-10번	7 (3.15)	62 (7.97)	69 (6.90)	
	10번 이상	4 (1.80)	40 (5.14)	44 (4.40)	
	항상	11 (4.95)	93 (11.95)	104 (10.40)	
지난 30일간	금식	10 (4.50)	94 (12.08)	104 (10.40)	<0.0001
	절식	53(23.87)	457 (57.97)	504 (50.40)	<0.0001
	다이어트 약물 남용	1 (0.45)	40 (5.14)	41 (4.10)	0.0019
	구토	4 (1.80)	43 (5.53)	47 (4.70)	0.0207
	변비약	2 (0.90)	43 (5.53)	45 (4.50)	0.0034
	운동	99 (44.59)	430 (55.27)	529 (52.90)	0.0049
	다이어트	44 (19.82)	401 (51.54)	445 (44.50)	<0.0001
BMI (kg/m <sup>2</sup> )	< 18.5	36(16.21)	147(18.89)	183(18.3)	<0.0001
	18.5-22.9	128(57.65)	477(61.31)	605(60.5)	
	23.0-24.9	24(10.81)	85(10.92)	109(10.9)	
	≥25.0	34(15.31)	69(8.86)	103(10.3)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114(51.35)	59(7.58)	173(17.30)	<0.0001
	높은 군	108(48.65)	719(92.42)	827(82.70)	
합계		222(22.20)	778(77.80)	1,000(100)	

##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양상

### 1)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분포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3 >과 같다. 분석결과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t=-6.90, p<0.0001$ ),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 유형인 또래에 의한 배제( $t=-3.68, p<0.01$ ),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t=-4.52, p<0.0001$ ),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t=-12.56, p<0.0001$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t=-4.60, p<0.0001$ ), 부모에 의한 놀림( $t=-4.28, p<0.0001$ ), 부모의 격려( $t=-5.16, p<0.0001$ ),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t=-4.47, p<0.0001$ )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성별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분포

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Mean ± SD)	
			t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34.94 ± 11.23	40.58 ± 8.91	-6.90	<0.0001
또래에 의한 놀림	7.46 ± 3.94	7.91 ± 2.96	-1.56	0.1204
또래에 의한 배제	8.45 ± 3.39	9.38 ± 2.93	-3.68	0.0003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9.27 ± 2.76	10.19 ± 2.30	-4.52	<0.0001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9.73 ± 3.64	13.09 ± 3.05	-12.56	<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44.67 ± 16.61	50.92 ± 18.19	-4.60	<0.0001
부모에 의한 놀림	11.29 ± 5.04	13.46 ± 7.08	-4.28	<0.0001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6.73 ± 3.13	6.74 ± 3.05	-0.06	0.9491
부모의 격려	14.59 ± 5.74	16.83 ± 5.60	-5.16	<0.0001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12.05 ± 5.14	13.85 ± 5.72	-4.47	<0.0001

## 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학교의 경우에 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교1(특성화계열)에서 113명(91.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이 1-2일 58명(4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은 1-2일 39명(39.39%), 3-4일(32.32%)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한다는 경우가 91명(78.98%)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안한다는 경우가 69명(69.70%)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간 살펴보면 절식 전체 53명(23.87%)로 체형관리 방법 중 절식의 태도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BMI( $\text{kg}/\text{m}^2$ )는 18.5-22.9가 전체 130명(58.56%)으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113(91.87)	79(79.80)	192(86.49)	0.0089
	2	10(8.13)	20(20.20)	30(13.51)	
학 년	1	66(53.66)	51(51.52)	117(52.70)	0.5700
	2	42(34.15)	31(31.31)	73(32.88)	
	3	15(12.20)	17(17.17)	32(14.41)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20(16.26)	14(14.14)	34(15.32)	0.1386
	1-2일	58(47.15)	39(39.39)	97(43.69)	
	3-4일	23(18.70)	32(32.32)	55(24.77)	
	5-7일	22(17.89)	14(14.14)	36(16.22)	
1년간 다이어트	안함	91(78.98)	69(69.70)	160(72.07)	0.5576
	1-4번	21(17.07)	19(19.19)	40(18.02)	
	5-10번	5(4.07)	2(2.02)	7(3.15)	
	10번 이상	1(0.81)	3(3.03)	4(1.80)	
	항상	5(4.07)	6(6.06)	11(4.95)	
지난30일간	금식	5(4.07)	5(5.05)	10(4.50)	0.7249
	절식	29(23.58)	24(24.24)	53(23.87)	0.9080
	구토 및 약물남용	4(3.25)	3(3.03)	7(3.15)	0.5576
BMI (kg/m <sup>2</sup> )	< 18.5	20(16.26)	16(16.16)	36(16.22)	0.9613
	18.5-22.9	73(59.35)	57(57.58)	130(58.56)	
	23.0-24.9	11(8.94)	11(11.11)	22(9.91)	
	≥25.0	19(15.45)	15(15.15)	34(15.32)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61(49.59)	53(53.54)	114(51.35)	0.5592
	높은 군	62(50.41)	46(46.46)	108(48.65)	
합계		123(55.41)	99(44.59)	222(100)	

### 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 표 5 >와 같다.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에 수준이 낮은 집단이 1(특성 화계열)에서 113명(91.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0(없음)이 333명(42.86%),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51%)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전체 안함 315명(40.49%), 1-4번 268명(34.45%), 항상 93명(1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이라는 경우가 세 번째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0일간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금식이 58명(14.83%)로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절식은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213명(55.04%),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238명(60.87%)로 체형관리 방법 중 절식의 태도를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BMI( $\text{kg}/\text{m}^2$ )의 경우에는 사회적 압박 수준에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BMI가  $\geq 25.0$  집단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 표 5 >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120(31.01)	81(20.72)	201(25.84)	0.0045
	2	138(35.66)	157(37.92)	295(37.92)	
	3	129(33.33)	153(39.13)	282(36.25)	
학 년	1	189(48.84)	174(44.50)	363(46.66)	0.0355
	2	162(41.86)	157(40.15)	319(41.00)	
	3	36(9.30)	60(15.35)	96(12.34)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0(없음)	157(40.57)	176(45.13)	333(42.86)	0.6363
30분 이상	1-2일	155(40.05)	142(36.41)	297(38.22)	
중 강도운동	3-4일	49(12.66)	47(12.05)	96(12.36)	
(주당)	5-7일	26(6.72)	25(6.41)	51(6.51)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61(41.60)	154(39.39)	315(40.49)	0.0984
	1-4번	145(37.47)	123(31.46)	268(34.45)	
	5-10번	24(6.20)	38(9.72)	62(7.97)	
	10번 이상	17(4.39)	23(5.88)	40(5.14)	
	항상	40(10.34)	53(13.55)	93(11.95)	
지난 30일간	금식	36(9.30)	58(14.83)	94(12.08)	0.0175
	절식	213(55.04)	238(60.87)	451(30.0)	0.0955
	구토 및 약물복용	59(15.24)	67(17.14)	126(2.7)	0.1625
BMI (kg/m <sup>2</sup> )	< 18.5	82(21.19)	65(16.62)	147(18.89)	0.0063
	18.5-22.9	245(63.31)	232(59.34)	477(61.31)	
	23.0-24.9	29(7.49)	58(14.83)	87(11.18)	
	≥25.0	31(8.01)	36(9.21)	67(8.61)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35(9.04)	24(6.14)	59(7.58)	0.1258
	높은 군	352(90.96)	367(93.86)	719(92.42)	
합계		387(49.74)	391(50.26)	778(100)	

### 3. 외모만족도 양상

#### 1) 성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분포

외모만족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6 >과 같다. 분석결과, 외모만족도( $t=-4.09$ ,  $p<0.0001$ )와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 얼굴( $t=2.49$ ,  $p<0.05$ ), 상반신( $t=3.17$ ,  $p<0.01$ ), 하반신( $t=5.59$ ,  $p<0.0001$ ), 전신( $t=4.11$ ,  $p<0.0001$ ) 전체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와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6 > 성별에 따른 외모 만족도 분포

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Mean ± SD)	
			t	p-value
외모 만족도	58.73 ± 16.23	53.89 ± 12.95	-4.09	<0.0001
얼굴	17.62 ± 4.96	16.71 ± 4.22	2.49	0.0131
상반신	17.41 ± 5.88	16.04 ± 4.75	3.17	0.0017
하반신	6.91 ± 2.62	5.83 ± 2.33	5.59	<0.0001
전신	16.78 ± 4.86	15.31 ± 4.20	4.11	<0.0001

## 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 표 7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일반적 특성인 학교, 학년을 살펴보면 학교 1(특성화 계열), 학교 2(인문계열)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0(없음)이 20명(21.09%)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5-7일이 23명(19.49%)으로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높은 집단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6.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은 집단은 1-4번 등 전반적으로 많은 다이어트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간을 살펴보면 신체부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 금식이 7명(5.93%)로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절식은 전체 53명(24.9%)으로 연구대상자 남학생의 4분의 1이 체형관리 방법 중 절식의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BMI(kg/m<sup>2</sup>)의 경우에는 수준에서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상대적으로 BMI가 23.0-24.9 집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특성들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다.

< 표 7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103(87.29)	89(85.58)	192(86.49)	0.7098
	2	15(12.71)	15(14.42)	30(13.51)	
학 년	1	63(53.39)	54(51.92)	117(52.70)	0.9714
	2	38(32.20)	35(33.65)	73(32.88)	
	3	17(14.41)	15(14.42)	32(14.41)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3(11.02)	21(20.19)	34(15.32)	0.0985
	1-2일	56(47.46)	41(39.42)	97(43.69)	
	3-4일	26(22.03)	29(27.88)	55(24.77)	
	5-7일	23(19.49)	13(12.50)	36(16.22)	
1년간 다이어트	안함	80(67.80)	80(76.92)	160(42.07)	0.4492
	1-4번	26(22.03)	14(13.46)	40(18.02)	
	5-10번	3(2.54)	4(3.85)	7(3.15)	
	10번 이상	2(1.69)	2(1.92)	4(1.80)	
	항상	7(5.93)	4(3.85)	11(4.95)	
지난30일간	금식	7(5.93)	3(2.88)	10(4.7)	0.2746
	절식	32(27.12)	21(20.19)	53(24.9)	0.2271
	다이어트 약물	1(0.85)	0(0.00)	1(0.45)	0.3467
BMI(kg/m <sup>2</sup> )	< 18.5	20(16.95)	16(15.38)	36(16.22)	0.7169
	18.5-22.9	66(55.93)	64(61.54)	130(58.56)	
	23.0-24.9	14(11.86)	8(7.69)	22(9.91)	
	≥25.0	18(15.25)	16(15.38)	34(15.32)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59(50.00)	55(52.88)	114(51.35)	0.6679
	높은 군	59(50.00)	49(47.12)	108(48.65)	
합계		118(53.15)	104(46.85)	222(100)	

### 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 표 8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0(없음)이 182명(44.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3-4일이 51명(13.90%)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년간 다이어트는 높은 집단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0명(43.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은 집단은 5-10번이 38명(9.27%), 항상 52명(12.68%)으로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많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간을 살펴보면 외모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금식 60명(14.6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p < 0.05$ ). 절식은 250명(60.98%)로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2배 높은 유의한 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BMI( $\text{kg}/\text{m}^2$ )의 경우에는 외모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BMI $\geq$ 25.0가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BMI $\geq$ 25.0의 1.72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결론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특성들 중 체형관리 태도 중 지난 30일간 다이어트 방법과 BMI( $\text{kg}/\text{m}^2$ )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표 8 >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수준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일반적 특성					
학 교	1	100(24.39)	101(27.45)	201(25.84)	0.5719
	2	156(38.05)	139(37.77)	295(37.92)	
	3	154(37.56)	128(34.78)	282(36.25)	
학 년	1	189(46.10)	174(47.28)	363(46.66)	0.8376
	2	172(41.95)	147(39.95)	319(41.00)	
	3	49(11.95)	47(12.77)	96(12.34)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0(없음)	182(44.39)	151(41.14)	333(42.86)	0.6104
30분 이상	1-2일	156(38.05)	141(38.42)	297(38.22)	
중 강도운동 (주당)	3-4일	45(10.98)	51(13.90)	96(12.36)	
	5-7일	27(6.59)	22(6.54)	51(6.56)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55(37.80)	160(43.48)	315(40.49)	0.4227
	1-4번	144(35.12)	124(33.70)	268(34.45)	
	5-10번	38(9.27)	24(6.52)	62(7.97)	
	10번 이상	21(5.12)	19(5.16)	40(5.14)	
	항상	52(12.68)	41(11.14)	93(11.95)	
지난 30일간	금식	60(14.63)	27(4.90)	94(6.30)	0.0212
	절식	250(60.98)	167(30.50)	451(30.00)	0.0729
	다이어트 약물	32(7.80)	8(2.17)	40(5.14)	0.0004
BMI(kg/m <sup>2</sup> )	< 18.5	68(16.59)	79(21.47)	147(18.89)	0.0392
	18.5-22.9	247(60.24)	230(62.50)	477(61.31)	
	23.0-24.9	51(12.44)	36(9.78)	87(11.18)	
	≥25.0	44(10.73)	23(6.25)	67(8.61)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35(8.54)	24(6.52)	59(7.58)	0.2892
	높은 군	375(91.46)	344(93.48)	719(92.42)	
합계		410(52.70)	368(47.30)	778(100)	

## 4. 자아존중감 양상

###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포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 표 9 >와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9 >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포

속 성	남자(n=222)	여자(n=778)	(Mean ± SD)	
			t	p-value
자아존중감	26.30 ± 3.85	25.99 ± 3.31	1.08	0.2820
긍정적 평가	14.69 ± 3.14	14.63 ± 3.26	0.25	0.8015
부정적 평가	11.61 ± 3.22	11.36 ± 3.05	1.01	0.3111

## 2)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평가 수준을 살펴보면 < 표 10 >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와 학년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0(없음)이 24명(17.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1-2일이 35명(42.68%)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전체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60명(7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번이 40명(18.02%), 항상 11명(4.95%)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BMI(kg/m<sup>2</sup>)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BMI<18.5가 24명(17.1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 표 10 > 남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속 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전체(%)	
일반적 특성					
학교	1	122(87.14)	70(85.37)	192(86.49)	0.7086
	2	18(12.86)	12(14.63)	30(13.51)	
학년	1	69(49.29)	48(58.54)	117(52.70)	0.1383
	2	46(32.86)	27(32.93)	73(32.88)	
	3	25(17.86)	7(8.54)	32(14.41)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0(없음)	24(17.14)	10(12.20)	34(15.32)	0.5876
30분 이상	1-2일	62(44.29)	35(42.68)	97(43.69)	
중 강도운동 (주당)	3-4일	31(22.14)	24(29.27)	55(24.77)	
	5-7일	23(16.43)	13(15.85)	36(16.22)	
1년간 다이어트	안함	96(68.57)	64(78.05)	160(72.07)	0.2879
	1-4번	27(19.29)	13(15.85)	40(18.02)	
	5-10번	4(2.86)	3(3.66)	7(3.15)	
	10번 이상	3(2.14)	1(1.22)	4(1.80)	
	항상	10(7.14)	1(1.22)	11(1.95)	
지난 30일간	금식	8(5.71)	2(2.44)	10(4.50)	0.2561
	절식	35(25.00)	18(21.95)	53(23.87)	0.6071
	구토 및	3(2.14)	4(4.88)	7(3.15)	0.5698
	약물남용				
BMI(kg/m <sup>2</sup> )	< 18.5	24(17.14)	12(14.63)	36(16.22)	0.0883
	18.5-22.9	76(54.29)	54(65.85)	130(58.56)	
	23.0-24.9	19(13.57)	3(3.66)	22(9.91)	
	≥25.0	21(15.00)	13(15.85)	34(15.32)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64(55.17)	50(47.17)	114(51.35)	0.2334
	높은 군	52(44.83)	56(52.83)	108(48.65)	
합계		116(62.25)	106(47.75)	222(100)	

### 3)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여학생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가 수준을 살펴보면 < 표 11 >과 같다.

일반적 특성인 학교와 학년에 따른 부정적 평가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333명(4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2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체형관리 태도 중 3개월간 30분 이상 주당 중강도 운동에서는 전체 333명(4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일 297명(38.22%), 3-4일 96명(12.36%), 5-7일 51명(6.2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년간 다이어트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안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2명(4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10번 이상이 26명(7.01%)로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많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5$ ).

지난 30일간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절식의 형태가 229명(6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구토 및 약물남용은 86명(23.19%)이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구토 및 약물남용은 30명(9.83%)으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BMI( $\text{kg}/\text{m}^2$ )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의 BMI 수준 23.0-24.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체형관리 태도 중 1년간 다이어트와 지난30일간의 다이어트 방법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표 11 >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특성

속 성	자아존중감				p - value
	부정적 평가				
	낮은 군	높은 군	전체		
일반적 특성					
학교	1	112(27.52)	89(23.99)	201(25.84)	0.4343
	2	147(36.12)	148(39.89)	295(37.92)	
	3	148(36.36)	134(36.12)	282(36.25)	
학년	1	224(46.86)	139(46.64)	363(46.78)	0.4931
	2	190(39.75)	127(46.62)	317(40.85)	
	3	64(13.39)	32(10.74)	96(12.37)	
체형관리 태도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운동 (주당)	0(없음)	171(42.12)	162(43.67)	333(42.86)	0.8149
	1-2일	153(37.68)	144(38.81)	297(38.22)	
	3-4일	53(13.05)	43(11.59)	96(12.36)	
	5-7일	29(7.14)	22(5.93)	51(6.26)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72(42.26)	143(38.54)	315(40.49)	0.0437
	1-4번	150(36.86)	118(31.81)	268(34.45)	
	5-10번	30(7.37)	32(8.63)	62(7.97)	
	10번 이상	14(3.44)	26(7.01)	40(5.14)	
	항상	41(10.07)	52(14.02)	93(11.95)	
지난 30일간	금식	32(7.86)	62(16.71)	94(12.08)	0.0002
	절식	222(54.55)	229(61.73)	451(57.97)	0.0427
	구토 및 약물남용	30(9.83)	86(23.19)	116(14.91)	0.0014
BMI(kg/m <sup>2</sup> )	< 18.5	72(17.69)	75(20.22)	147(18.89)	0.6444
	18.5-22.9	251(61.67)	226(60.92)	477(61.31)	
	23.0-24.9	50(12.29)	37(9.97)	87(11.18)	
	≥25.0	34(8.35)	33(8.89)	67(8.61)	
성형태도					
긍정적 평가	낮은 군	34(8.35)	25(6.74)	59(7.58)	0.3953
	높은 군	373(91.65)	346(93.26)	719(92.42)	
합계		407(52.31)	371(47.69)	778(100)	

## 5.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관계 양상

###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포

####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남학생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2 >와 같다.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은 집단 전체 118명(59.60%), 높은 집단 전체 104명(46.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를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낮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 77명(62.60%), 높은 군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 65명(65.66%)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는 낮은 집단 전체 116명(36.04%), 높은 집단 전체 106명(47.75%)로 나타났다.

< 표 12 > 남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만족도	낮은 군	59(47.97)	59(59.60)	118(53.15)	0.0844
	높은 군	64(52.03)	40(40.40)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142(63.96)	0.6375	
	낮은 군	77(62.60)			65(65.66)
	부정적 평가		116(52.25)	0.1214	
	낮은 군	46(37.40)			34(34.34)
	높은 군	70(56.91)	46(46.46)	116(52.25)	0.1214
	높은 군	53(43.09)	53(53.54)	106(47.75)	

## (2)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3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수준이 높은 집단이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64명(61.54%)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에서 전체 142명(63.96%)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에서 전체 140명(63.06%)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 > 남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관련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59(50.00)	64(61.54)	123(55.41)	0.0844
	높은 군	59(50.00)	40(38.46)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142(63.96)	0.3300	
	낮은 집단	72(61.02)			70(67.31)
	높은 집단	46(38.98)	34(32.69)		80(36.04)
	부정적 평가		140(63.06)		
낮은 집단	42(35.59)	40(38.46)		82(36.94)	0.6586
	높은 집단	76(64.41)	64(61.54)	140(63.06)	

### (3)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4 >과 같다.

< 표 14 >의 결과를 통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표 14 >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속 성	자아존중감 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긍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77(54.23)	46(57.50)	123(55.41)	0.6375
	높은 군	65(45.77)	34(42.50)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72(50.70)	46(57.50)	118(53.15)	0.6010
	높은 군	70(49.30)	34(42.50)	104(46.85)	
부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76(54.29)	47(57.32)	123(55.41)	0.6375
	높은 군	64(45.71)	35(42.68)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76(54.29)	42(51.22)	118(53.15)	0.6586
	높은 군	64(45.71)	40(48.78)		

## 2)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분포 양상

### (1)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여학생의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5 >와 같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별로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250명(63.9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 긍정적 평가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평가가 207명(52.94%)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 표 15 > 여학생의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속 성	외모관련사회적압박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만족도	낮은 군	160(41.34)	250(63.94)	410(52.70)	<0.0001
	높은 군	227(58.66)	141(36.06)	368(47.30)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0.6298
	낮은 집단	257(66.41)	266(68.03)	523(67.22)	
	높은 집단	130(33.59)	125(31.97)	255(32.78)	
	부정적 평가				0.0032
낮은 집단	223(57.62)	184(47.06)	407(52.31)		
높은 집단	164(42.38)	207(52.94)	371(47.69)		

## (2)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6 >과 같다.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은 군이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명(61.68%)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50명(60.9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긍정적 평가를 외모만족도 수준별로 살펴보면 낮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 316명(77.07%),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 161명(43.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인인 부정적 평가 또한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 286명(69.93%)으로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 표 16 > 여학생의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속 성	외모만족도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외모관련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160(39.02)	227(61.68)	387(49.74)	<0.0001
	높은 군	250(60.98)	141(38.32)	391(50.26)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0.0001
	낮은 군	316(77.07)	206(56.13)	522(67.18)	
	높은 군	94(22.93)	161(43.87)	255(32.82)	
	부정적 평가				
낮은 군	123(30.07)	175(47.68)	298(38.40)	<0.0001	
높은 군	286(69.93)	192(52.32)	478(61.60)		

### (3)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양상을 살펴보면 < 표 17 >과 같다.

긍정적 평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87명(49.81%)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평가에서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390명(50.19%)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 수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이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161명(63.14%)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명(60.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부정적 평가 수준에 따른 외모 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수준이 높은 집단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명(55.80%)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23명(54.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 < 0.01$ ).

외모만족도 수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명(62.80%)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가 낮은 집단에서는 외모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30명(56.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01$ ).

< 표 17 >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속 성	자아존중감 수준		전체(%)	p-value	
	낮은 군(%)	높은 군(%)			
긍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257(49.23)	130(50.98)	387(49.81)	0.6475
	높은 군	265(50.77)	125(49.02)	390(50.19)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316(60.54)	94(36.86)	410(52.77)	< 0.0001
	높은 군	206(39.46)	161(63.14)	367(47.23)	
부정적 평가					
외모관력 사회적압박수준	낮은 군	223(54.79)	164(44.20)	387(49.74)	0.0032
	높은 군	184(45.21)	207(55.80)	391(50.26)	
외모만족도 수준	낮은 군	177(43.49)	233(62.80)	410(52.70)	< 0.0001
	높은 군	230(56.51)	138(37.20)	368(47.30)	

### 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상관관계 분석

#### (1)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각 변인들 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18 >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합( $r=-0.133, p<0.05$ ) 상반신만족도( $r=-0.133, p<0.05$ ), 전신만족도( $r=-0.153, p<0.05$ ), 자아존중감 합( $r=-0.197,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09,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 $r=-0.172, p<0.05$ ), 상반신만족도( $r=-0.163, p<0.05$ ), 전신만족도( $r=-0.195, p<0.01$ ), 자아존중감( $r=-0.182, p<0.01$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05, p<0.01$ )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 $r=-0.140, p<0.05$ ), 상반신만족도( $r=-0.169, p<0.05$ ), 전신만족도( $r=-0.182, p<0.01$ ), 자아존중감( $r=-0.218, p<0.01$ )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20,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외모관련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모만족도( $r=-0.287, p<0.001$ ), 얼굴만족도( $r=-0.248, p<0.01$ ), 상반신 만족도( $r=-0.242, p<0.01$ ), 하반신 만족

도( $r=-0.240$ ,  $p<0.01$ ), 전신만족도( $r=-0.282$ ,  $p<0.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r=-0.242$ ,  $p<0.01$ ), 긍정적 평가( $r=-0.159$ ,  $p<0.05$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부정적 평가( $r=0.225$ ,  $p<0.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표준과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r=-0.171$ ,  $p<0.05$ )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173$ ,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놀림과 하반신 만족도( $r=-0.133$ ,  $p<0.05$ )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199$ ,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와 자아존중감( $r=-0.211$ ,  $p<0.01$ )과는 정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220$ ,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걱려는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중 하반신 만족도( $r=-0.138$ ,  $p<0.05$ )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와 자아존중감( $r=-0.140$ ,  $p<0.05$ )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151$ ,  $p<0.05$ )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8 > 남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2	3	4	5	6	7	8	9	10	11
외모만족도합	-.133*	-.172*	-.140*	-.287***	.006	-.117	-.082	-.113	-.084	-.083	.000
얼굴만족도	-.052	-.115	-.042	-.248**	.039	-.108	.000	-.031	.016	-.002	.027
상반신만족도	-.139*	-.163*	-.169*	-.242**	-.004	-.092	-.097	-.112	-.129	-.090	-.015
하반신만족도	-.129	-.122	-.072	-.240**	.010	-.081	-.111	-.144*	-.098	-.138*	.010
전신만족도	-.153*	-.195**	-.182**	-.282***	-.022	-.126	-.097	-.132*	-.088	-.093	-.015
자아존중감 합	-.197**	-.182**	-.218**	-.242**	.019	-.116	-.171*	-.209**	-.211**	-.054	-.140*
긍정적 평가	-.104	-.084	-.125	-.159*	.092	-.045	-.099	-.133*	-.114	-.032	-.071
부정적 평가	.209**	.205**	.220**	.225**	.060	.139	.173**	.199**	.220**	.054	.151*

\* $p < .05$  \*\* $p < .01$  \*\*\* $p < .001$

-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합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2 :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3 : 또래에 의한 놀림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4 : 또래에 의한 배제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5 :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6) 사회적 압박 6 :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7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8)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8 : 부모에 의한 놀림    9) 사회적 압박 9 :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10)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0 : 부모의 격려    1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1 :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 (2)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19 >에서 제시하였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만족도 합과 자아존중감 합( $r=0.522$ ,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521$ ,  $p<0.0001$ ),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얼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473$ ,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483$ ,  $p<0.0001$ ), 상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444$ ,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440$ ,  $p<0.0001$ ), 하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418$ ,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422$ ,  $p<0.0001$ ), 전신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496$ ,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487$ ,  $p<0.0001$ ) 모두 중등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만족도 합과 부정적 평가( $r=-0.312$ ,  $p<0.0001$ ), 얼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273$ ,  $p<0.0001$ ), 상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269$ ,  $p<0.0001$ ), 하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247$ ,  $p<0.0001$ ), 전신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305$ ,  $p<0.0001$ )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표 19 >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합	얼굴만족도	상체만족도	하체만족도	전신만족도
자아존중감 합	.522***	.473***	.444***	.418***	.496***
긍정적 평가	.521***	.483***	.440***	.422***	.487***
부정적 평가	-.312***	-.273***	-.269***	-.247**	-.305***

\* $p<.05$  \*\* $p<.01$  \*\*\* $p<.001$

### (3)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20 >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298$ ,  $p<0.001$ ), 얼굴만족도( $r=-0.168$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243$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273$ ,  $p<0.001$ ), 전신만족도( $r=-0.324$ ,  $p<0.001$ ), 자아존중감( $r=-0.256$ ,  $p<0.001$ ), 긍정적 평가( $r=-0.184$ ,  $p<0.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65$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262$ ,  $p<0.001$ ), 얼굴만족도( $r=-0.234$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195$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166$ ,  $p<0.001$ ), 전신만족도( $r=-0.259$ ,  $p<0.001$ ), 자아존중감( $r=-0.263$ ,  $p<0.001$ ), 긍정적 평가( $r=-0.190$ ,  $p<0.001$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65$ ,  $p<0.001$ )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r=-0.303$ ,  $p<0.001$ ), 얼굴만족도( $r=-0.289$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232$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167$ ,  $p<0.001$ ), 전신만족도( $r=-0.287$ ,  $p<0.001$ ), 자아존중감( $r=-0.295$ ,  $p<0.001$ ), 긍정적 평가( $r=-0.214$ ,  $p<0.001$ )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302$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외모만족도( $r=-0.285$ ,  $p<0.001$ ), 얼굴만족도( $r=-0.229$ ,  $p<0.001$ ), 상반신

만족도( $r=-0.249$ ,  $p<0.001$ ), 하반신 만족도( $r=-0.186$ ,  $p<0.001$ ), 전신만족도( $r=-0.264$ ,  $p<0.001$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r=-0.325$ ,  $p<0.001$ ), 긍정적 평가( $r=-0.266$ ,  $p<0.001$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부정적 평가( $r=0.298$ ,  $p<0.0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표준과 외모만족도( $r=-0.135$ ,  $p<0.01$ ), 얼굴만족도( $r=-0.147$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086$ ,  $p<0.05$ ), 전신만족도( $r=-0.136$ ,  $p<0.001$ ), 자아존중감( $r=-0.164$ ,  $p<0.001$ ), 긍정적 평가( $r=-0.113$ ,  $p<0.0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평가( $r=0.174$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와 외모만족도( $r=-0.095$ ,  $p<0.01$ ), 얼굴만족도( $r=-0.071$ ,  $p<0.05$ ), 하반신만족도( $r=-0.097$ ,  $p<0.01$ ), 전신만족도( $r=-0.122$ ,  $p<0.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과는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064$ ,  $p<0.05$ )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r=-0.264$ ,  $p<0.001$ ), 얼굴만족도( $r=-0.106$ ,  $p<0.01$ ), 상반신만족도( $r=-0.224$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278$ ,  $p<0.001$ ), 전신만족도( $r=-0.298$ ,  $p<0.001$ ), 자아존중감( $r=-0.207$ ,  $p<0.001$ ), 긍정적 평가( $r=-0.148$ ,  $p<0.001$ )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218$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놀림과 외모만족도( $r=-0.306$ ,  $p<0.001$ ), 얼굴만족도( $r=-0.121$ ,  $p<0.01$ ), 상반신만족도( $r=-0.259$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334$ ,  $p<0.001$ ), 전신만족도( $r=-0.344$ ,  $p<0.001$ ), 자아존중감( $r=-0.219$ ,  $p<0.001$ ), 긍정적 평가( $r=-0.169$ ,  $p<0.0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 $r=0.219$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와 외모만족도

( $r=-0.228$ ,  $p<0.001$ ), 얼굴만족도( $r=-0.159$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208$ ,  $p<0.001$ ), 하반신 만족도( $r=-0.169$ ,  $p<0.001$ ), 전신만족도( $r=-0.213$ ,  $p<0.001$ ), 자아존중감( $r=-0.266$ ,  $p<0.001$ ), 긍정적 평가( $r=-0.220$ ,  $p<0.001$ )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245$ ,  $p<0.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격려와 외모만족도( $r=-0.183$ ,  $p<0.001$ ), 상반신만족도( $r=-0.154$ ,  $p<0.001$ ), 하반신만족도( $r=-0.235$ ,  $p<0.001$ ), 전신만족도( $r=-0.222$ ,  $p<0.001$ ), 자아존중감( $r=-0.093$ ,  $p<0.001$ )과는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118$ ,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부모의 외모표준과 표준화와 외모만족도( $r=-0.159$ ,  $p<0.001$ ), 상반신 만족도( $r=-0.130$ ,  $p<0.01$ ), 하반신만족도( $r=-0.150$ ,  $p<0.001$ ), 전신만족도( $r=-0.192$ ,  $p<0.05$ )격려는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중하반신 만족도( $r=-0.138$ ,  $p<0.001$ ), 자아존중감( $r=-0.154$ ,  $p<0.001$ )과 부적 상관을 부정적 평가( $r=0.176$ ,  $p<.001$ )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0 >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2	3	4	5	6	7	8	9	10	11
외모만족도합	-.298***	-.262***	-.303***	-.285***	-.135**	-.095**	-.264***	-.306***	-.228***	-.183***	-.159***
얼굴만족도	-.168***	-.234***	-.289***	-.229***	-.147***	-.071*	-.106**	-.121**	-.159***	-.037	-.066
상반신만족도	-.243***	-.195***	-.232***	-.249***	-.086*	-.040	-.224***	-.259***	-.208***	-.154***	-.130**
하반신만족도	-.273***	-.166***	-.167***	-.186***	-.060	-.097**	-.278***	-.334***	-.169***	-.235***	-.150***
전신만족도	-.324***	-.259***	-.287***	-.264***	-.136***	-.122**	-.298***	-.344***	-.213***	-.222***	-.192***
자아존중감 합	-.256***	-.263***	-.295***	-.325***	-.164***	-.048	-.207***	-.219***	-.266***	-.093***	-.154***
긍정적 평가	-.184***	-.190***	-.214***	-.266***	-.113***	-.009	-.148***	-.169***	-.220***	-.046	-.099
부정적 평가	.265***	.265***	.302***	.298***	.174***	.064*	.218***	.219***	.245***	.118**	.176***

\*p<.05 \*\*p<.01 \*\*\*p<.001

- 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합 2)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2 :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3)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3 : 또래에 의한 놀림  
 4)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4 : 또래에 의한 배제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5 :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6) 사회적 압박 6 :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7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합 8)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8 : 부모에 의한 놀림 9) 사회적 압박 9 : 부모의 부당함과 무시  
 10)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0 : 부모의 격려 11)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11 :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 (4)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련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21 >에서 제시하였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모만족도 합과 자아존중감 합( $r=0.418,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425, p<0.0001$ ),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얼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381,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373, p<0.0001$ ), 상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333,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344, p<0.0001$ ), 하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271,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300, p<0.0001$ ), 전신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합( $r=0.379, p<0.0001$ ), 자아존중감 하위변인인 긍정적 평가( $r=0.379, p<0.0001$ ) 모두 중등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모만족도 합과 부정적 평가( $r=-0.314, p<0.0001$ ), 얼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303, p<0.0001$ ), 상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251, p<0.0001$ ), 하체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172, p<0.0001$ ), 전신만족도와 부정적 평가( $r=-0.285, p<0.0001$ )와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표 21 >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속 성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합	얼굴만족도	상체만족도	하체만족도	전신만족도
자아존중감 합	.418***	.381***	.333***	.271***	.379***
긍정적 평가	.425***	.373***	.344***	.300***	.379***
부정적 평가	-.314***	-.303***	-.251***	-.172***	-.285***

\* $p<.05$  \*\* $p<.01$  \*\*\* $p<.001$

#### 4)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상관성 회귀 분석

##### (1)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 표 22 >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beta=-0.159$ ,  $p<0.01$ ),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 $\beta=3.496$ ,  $p<0.01$ ), 5-7일( $\beta=3.632$ ,  $p<0.05$ ),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 $\beta=-5.574$ ,  $p<0.01$ ), 항상( $\beta=-3.380$ ,  $p<0.05$ ), BMI( $\beta=-0.552$ ,  $p<0.0001$ ), 성형태도( $\beta=-0.239$ ,  $p<0.0001$ )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에 관련성을 갖는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beta=-0.170$ ,  $p<0.01$ ),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 $\beta=3.496$ ,  $p<0.05$ ),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4번( $\beta=-2.099$ ,  $p<0.05$ ), 10번 이상( $\beta=-4.896$ ,  $p<0.05$ ), BMI( $\beta=-0.727$ ,  $p<0.0001$ ), 성형태도( $\beta=-0.270$ ,  $p<0.0001$ )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 표 22 >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속 성	외모만족도						
	전체(N=1,000)		남자(N=222)		여자(N=778)		
	$\beta$	p-value	$\beta$	p-value	$\beta$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0.159	0.0024	-0.210	0.0983	-0.170	0.0034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23	0.4168	0.039	0.6284	-0.023	0.4317	
3개월간	0(없음)	0.000	.	0.000	.	0.000	
30분 이상	1-2일	1.712	0.0702	5.539	0.0900	1.369	0.1566
중 강도 운동	3-4일	3.496	0.0057	6.743	0.0610	3.480	0.0138
(주당)	5-7일	3.632	0.0212	7.436	0.0652	3.187	0.0827
	안함	0.000	.	0.000		0.000	.
1년간	1-4번	-1.969	0.0657	-2.051	0.5330	-2.099	0.0482
다이어트 횟수	5-10번	-2.256	0.2033	5.382	0.4064	-3.056	0.0816
	10번 이상	-5.574	0.0081	-11.102	0.1730	-4.896	0.0182
	항상	-3.380	0.0372	-9.331	0.0934	-2.512	0.1207
BMI(kg/m <sup>2</sup> )		-0.552	<0.0001	-0.138	0.6721	-0.727	<0.0001
성형태도		-0.239	<0.0001	-0.131	0.4610	-0.270	<0.0001

##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 표 23 >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beta=-0.094$ ,  $p<0.0001$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beta=-0.028$ ,  $p<0.01$ ),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 $\beta = -2.589$ ,  $p<0.01$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 5-7일,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3-4일( $\beta=2.242$ ,  $p<0.05$ ), 5-7일( $\beta=3.340$ ,  $p<0.01$ )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 $\beta=-6.147$ ,  $p<0.05$ )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 $\beta = -0.122$ ,  $p<0.0001$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beta=-0.028$ ,  $p<0.05$ ), 1년간 다이어트 횟수 10번 이상( $\beta=-2.361$ ,  $p<0.05$ )의 경우 부적 상관관계 경향을 보였다.

< 표 23 >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성 회귀 분석

속 성	자아존중감						
	전체(N=1,000)		남자(N=222)		여자(N=778)		
	$\beta$	p-value	$\beta$	p-value	$\beta$	p-value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94	<0.0001	-0.047	0.2232	-0.122	<0.0001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0.028	0.0089	-0.025	0.3074	-0.028	0.0320	
3개월간	0(없음)	0.000	.	0.000	.	0.000	.
30분 이상	1-2일	0.831	0.8278	1.656	0.0980	0.180	0.6749
중 강도 운동 (주당)	3-4일	0.762	0.8813	2.242	0.0423	-0.042	0.9460
	5-7일	1.019	0.1095	3.340	0.0071	1.097	0.1779
1년간 다이어트 횟수	안함	0.000	.	0.000	.	0.000	.
	1-4번	0.064	0.8784	0.681	0.4994	-0.361	0.4435
	5-10번	-0.575	0.4224	0.763	0.7008	-0.910	0.2420
	10번 이상	-2.589	0.0024	-6.147	0.0143	-2.361	0.0103
	항상	-0.211	0.7472	-2.169	0.2026	-0.005	0.9946
BMI(kg/m <sup>2</sup> )		0.029	0.5886	0.103	0.3055	0.068	0.3157
성형태도		0.002	0.9222	-0.071	0.1944	-0.016	0.4967

## 5)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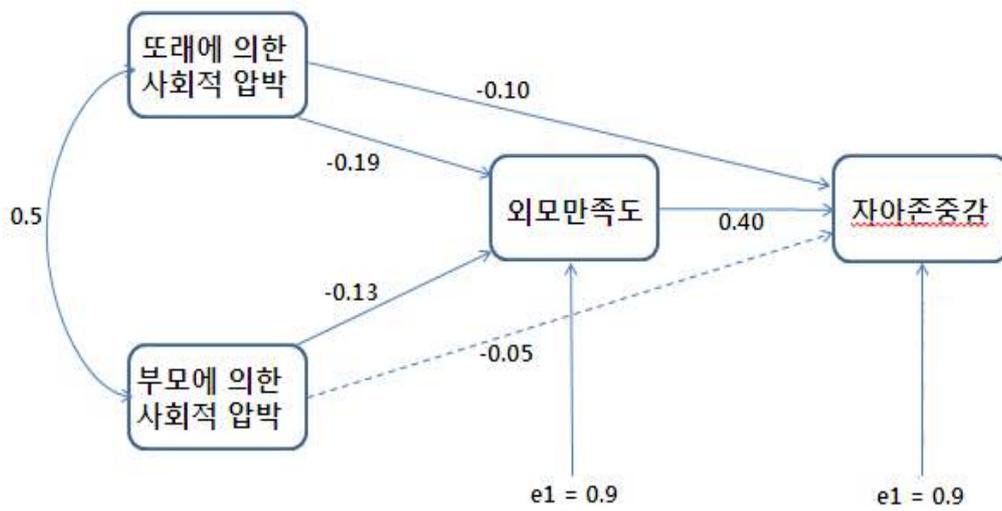
###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설정된 모형은 < 그림 2 >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변수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통계량은 693.51( $p < 0.0001$ )로 가설적 모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므로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 간의 사소한 차이도 모형을 기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 수에 덜 민감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결과적합지수(GFI)는 1.00, 표준적합지수(NFI)는 1.00, 원소간평균차이 지수(RMR)는 0.00, 표준 원소간 평균차이 지수(SRMR)는 0.00으로 나타나 모형과 실제 자료가 전반적으로 적합하였다.

### (2) 모형의 모수추정

모형의 분석결과 이론적 모형에 의해 도출된 5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고, 1개의 경로는 기각되었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beta = -0.19$ ,  $t = -5.36$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높을수록( $\beta = -0.13$ ,  $t = -3.78$ ) 외모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beta = 0.40$ ,  $t = 14.52$ )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beta = -0.10$ ,  $t = -3.06$ )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높을수록( $\beta = -0.05$ ,  $t = -1.49$ )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그림 2 >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경로분석



### (3) 모형의 직접, 간접, 총 효과 분석

모형의 변수 간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 표 24 >와 같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42%였다.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 외모만족도를 경유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4 > 모형의 직접, 간접, 총 효과

속 성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0.1773	-0.1025	-0.0748	-0.1028	-0.0498	-0.0530
	<0.0001	<0.01	<0.0001	<0.01	0.1357	<0.0001

6)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1) 남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남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25 >와 같다.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는 Model 1, 2 모두 유의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를 독립변수로 한 Model 1, 2를 살펴보면 학년에 있어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Model 1에서는 2.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Model 2에서는 3.15배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 표 25 > 남학생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N=222)			
속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40.0	1	1	1	1
	>40.0	0.77(0.41-1.44)	0.69(0.35-1.36)	1.78(0.90-3.52)	2.05(0.97-4.37)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44.0	1	1	1	1
	>44.0	1.08(0.59-1.96)	0.94(0.50-1.78)	1.11(0.59-2.08)	0.97(0.49-1.92)
학년	1	1	1	1	1
	2	0.92(0.51-1.66)	0.91(0.48-1.71)	1.18(0.64-2.17)	1.53(0.79-2.98)
	3	0.94(0.42-2.08)	0.82(0.35-1.93)	2.59(1.02-6.59)*	3.15(1.15-8.63)*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주)	0일(없음)		1		1
	1-2일		2.30(0.97-5.45)		0.69(0.27-1.78)
	3-4일		1.38(0.54-3.53)		0.42(0.15-1.18)
	5-7일		2.73(0.97-7.70)		0.47(0.15-1.47)
	안함		1		1
1년간 다이어트	1-4번		1.67(0.57-4.90)		2.17(0.63-7.44)
	5-10번		0.61(0.08-4.68)		1.13(0.14-9.43)
	10번 이상		1.06(0.13-8.62)		2.01(0.17-23.60)
	항상		1.29(0.25-6.54)		7.36(0.65-83.05)
	아니오		1		1
지난 30일간	금식		3.53(0.59-21.11)		1.44(0.20-10.46)
	아니오		1		1
	절식		0.94(0.34-2.62)		0.63(0.20-2.00)
	아니오		1		1
	다이어트 약		0.000		0.000
	아니오		1		1
	구토		0.95(0.04-21.36)		0.14(0.00-5.86)
	아니오		1		1
BMI(kg/m <sup>2</sup> )	변비약		0.000		0.000
	<18.5		1		1
	18.5-22.9		0.69(0.31-1.55)		0.55(0.24-1.32)
	23.0-24.9		1.07(0.32-3.63)		2.42(0.52-11.16)
	≥25.0		0.63(0.20-2.00)		0.52(0.15-1.79)
성형태도	≤41.0		1		1
	>41.0		1.23(0.64-2.34)		0.86(0.43-1.70)

\* $p < .05$  \*\* $p < .01$  \*\*\* $p < .001$

## (2) 여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26 >과 같다.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Model 1에서는 1.50배(95% CI 1.04-1.95) 높았다( $p < 0.05$ ).

Model 2에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1.44배(95% CI 1.05-1.97) 높았다( $p < 0.05$ ). 또한 체형관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간의 체중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과 구토가 유의하였으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3.89배(95% CI 1.56-9.67) 높았다( $p < 0.01$ ). 구토를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0.46배 낮았다( $p < 0.05$ ). 또한 BMI( $\text{kg}/\text{m}^2$ )가 25.0이상인 경우 18.5미만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2.07배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 < 0.05$ ). 성형태도의 경우 성형태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은 위험이 0.54배 낮게 나타났다( $p < 0.05$ ).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또한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Model 1은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은 위험이 2.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 < 0.001$ ).

Model 2에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은 위험이 2.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지난 30일간 체중관리 형태 중 절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절식을 한 경우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1.65배 높게 나타났다( $p < 0.05$ ).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경우에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6.94배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 BMI( $\text{kg}/\text{m}^2$ )는 23.0-24.9인 경우 18.5미만인 경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0.51배 감소하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 < 0.05$ ).

< 표 26 > 여학생에서 외모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할 위험과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군에 속할 위험

		(N=778)			
속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40.0	1	1	1	1
	>40.0	1.50(1.11-2.02)*	1.44(1.05-1.97)*	2.18(1.60-2.98)***	2.19(1.57-3.05)***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44.0	1	1	1	1
	>44.0	1.35(0.99-1.84)	1.25(0.90-1.74)	1.34(0.98-1.84)	1.25(0.89-1.75)
학년	1	1	1	1	1
	2	1.10(0.81-1.49)	1.14(0.83-1.56)	0.97(0.71-1.33)	0.92(0.66-1.28)
	3	0.94(0.59-1.48)	0.87(0.54-1.40)	1.22(0.75-1.98)	1.19(0.71-1.97)
3개월간 30분 이상 중 강도 운동(주)	0일(없음)		1		1
	1-2일		0.87(0.62-1.21)		0.88(0.62-1.25)
	3-4일		0.67(0.41-1.10)		0.73(0.44-1.20)
	5-7일		0.89(0.47-1.69)		0.73(0.38-1.41)
1년간 다이어트	안함		1		1
	1-4번		1.00(0.65-1.52)		0.90(0.58-1.41)
	5-10번		1.47(0.75-2.90)		1.49(0.71-3.11)
	10번 이상		0.94(0.44-2.02)		1.65(0.68-3.98)
	항상		1.04(0.58-1.88)		0.69(0.37-1.27)
지난 30일간	아니오		1		1
	금식		1.44(0.83-2.50)		0.99(0.55-1.79)
	아니오		1		1
	절식		1.13(0.75-1.69)		1.65(1.97-24.41)*
	아니오		1		1
	다이어트 약		3.89(1.56-9.67)**		6.94(1.14-5.90)**
	아니오		1		1
	구토		0.46(0.21-0.98)*		2.04(0.85-4.87)
BMI(kg/m <sup>2</sup> )	아니오		1		1
	변비약		0.94(0.43-2.05)		0.74(0.32-1.70)
	<18.5		1		1
	18.5-22.9		1.26(0.85-1.87)		0.74(0.48-1.12)
성형태도	23.0-24.9		1.37(0.76-2.46)		0.51(0.28-0.94)*
	≥25.0		2.07(1.09-3.95)*		0.57(0.29-1.10)
	≤41.0		1		1
>41.0		0.54(0.30-0.95)*		1.19(0.67-2.10)	

\*p<.05 \*\*p<.01 \*\*\*p<.001

## V. 고찰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마른 체형에 대한 문화 규범과 체형 정체성 및 자기 인식평가를 따르는 지나친 외모 중심 사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신체상에 대한 염려, 신체 불만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청소년이 느끼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인식하고,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생활지도에 필요한 보건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성형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교, 학년, 체형관리 태도인 3개월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주당), 1년간 다이어트 횟수, 지난 30일간 다이어트 방법, BMI(kg/m<sup>2</sup>), 성형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형태도를 제외한 변인들은 연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비만도와 다이어트 형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말하고, 성형태도는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마음의 상태로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형태도에 있어 긍정적 태도가 현저하게 높은 92.42%를 차지한다는 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과 변화욕구와 성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성형을 희망하는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지숙(1992)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에 있어 외모에 의해 평가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Wardle, Hasse, & Steptoe(2006)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국가 여성들이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체중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토로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외부의 판단에 대해 자신감 있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외모 기준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판단력과 비판적 시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ASD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또래와 부모에 의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중에서 또래에 의한 배제,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 중 부모에 의한 놀림, 부모의 격려,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 모두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수준에 따른 특성들 중 학교에 한해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여학생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수준에 따라 학교와 지난 30일간의 체형관리 태도 중 금식, BMI(kg/m<sup>2</sup>)가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성별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학생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정도와 건강행동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외모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외모만족도 합과 외모만족도 하위변인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 만족도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특성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인 특성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 수준이 낮은 군(52.03%)에서 체형관리 태도 중 금식(7.80%), 다이어트 약물사용(14.63%)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체 변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와 체중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집착과 체형을 바꾸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임상적 거식증을 초래하는 건강하지 못한 체형관리 방법을 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Neumark-Stainer et al.,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 결과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관리한다는 보고와도 관련되어 있다(백인혜, 2013). 특히 여학생은 외모 불만족이 생겨났을 때,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게 되고 외모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외모만족도 수준에 따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는 여학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 신체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기 이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윤진, 1993; Kostanski & Gullone, 1998), 사회문화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다(이재창, 1994). 신체이미지는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유인애, 2011). 따라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더라도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신체 변화 전략 사용을 통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준(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BMI(kg/m<sup>2</sup>)의 수준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

지만, 이는 본 연구가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여학생은 체형관리 태도 중 1년간 다이어트 횟수와 지난 30일간 금식, 절식, 구토 및 약물남용은 부정적 평가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굶거나 토하는 섭식장애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이경혜, 2003).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건강하지 못한 체형관리 태도는 무월경과 골다공증, 거식증 등과 같은 위험한 신체 건강 문제 놓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측되는 건강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보건 교육학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째, 청소년들의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요인 중 또래에 의한 배제는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부모에 의한 압박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여학생의 상관분석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압박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하위변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외모만족도와 외모만족도의 하위변인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들과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 중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하위변인 학교 또는 학급의 외모 표준과 하반신 만족도, 또래에 의한 외모 표준화와 상반신 만족도, 자아존중감, 긍정적 평가,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 중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중 부모에 의한 놀림과 얼굴만족도, 부모의 격려와 얼굴만족도, 긍정적 평가, 부모의 외모 표준과 표준화와 얼굴만족

도, 긍정적 평가와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상관성이 상이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내면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하기 때문이며(김윤,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현정숙, 2007).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상관성 분석을 통한 남학생, 여학생 공통된 결과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또래에 의한 압박의 하나인 또래에 의한 배제와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집단 의식과 또래는 친구이상의 의미이며,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외모의 특징은 동년배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조성아, 1991). 또한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써 또래가 외모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고 결과를 지지한다(한국청소년 개발원, 2002).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분석 결과 남녀학생 모두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중등도 이상의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Abell & Richards, 1996; Stower & Durm, 1996; Davison & McCabe, 2005; 김양진, 1992; 이계원, 1993; 서윤경, 2003; 송미현, 2004; 주영미, 2005; 김은이, 2011).

여섯째, 독립변수인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과 종속변수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성 분석을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외모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를 보았을 때,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이외에 외모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형관리 태도인 운동 빈도, 다이어트 횟수, BMI(kg/m<sup>2</sup>), 성형태도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다이어트 횟수, BMI(kg/m<sup>2</sup>), 성형태도가 증가할수록 외모만

족도는 낮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운동 빈도는 증가할수록 외모만족도는 높아지는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결과와 흡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BMI(kg/m<sup>2</sup>)와 성형태도가 외모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로 매우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를 보았을 때,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이외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과 체형관리 태도 중 다이어트 횟수였다.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 다이어트 횟수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전체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자신의 신체외모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여학생들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Rosenblum & Lewis, 1999).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Frost & McKelvie, 2004).

일곱째, 측정변인간의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 또래와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증가할수록,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낮아졌다.

여덟째,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과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성 분석을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는,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를 할 위험이 3.15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먼저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있어서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1.44배(95% CI 1.05-1.97)로 높았다( $p < 0.05$ ). 체형관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간의 체중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구토가 유의하였으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3.89배(95% CI 1.56-9.67)로 높았으며, 구토를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0.46배 낮았다. BMI( $\text{kg}/\text{m}^2$ )는 25.0이상인 경우 18.5미만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낮을 위험이 2.07배(95% CI 1.56-9.67) 높았다( $p < 0.05$ ).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결과 부모에 의한 사회적 압박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2.19배(95% CI 1.36-2.56)로 높았다( $p < 0.001$ ). 체형관리 태도 변수 중에서 지난 30일간의 체중관리 방법에서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절식이 유의하였으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6.94배(95% CI 1.97-24.41)로 높았으며, 절식을 한 군이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1.65배 높았다. BMI( $\text{kg}/\text{m}^2$ )는 23.0-24.9인 경우에 18.5미만에 비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가 높을 위험이 0.51배 낮았다( $p < 0.05$ ).

위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라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했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강한 관계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형관리 태도로 다이어트 약물 사용과 구토로 건강하지 못한 체형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외모중시 사회인 현 시대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건강한 신체 성장과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

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와 같은 외모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신체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외모 관리 행동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주며(홍금희, 200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 인식은 모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황윤정, 2007).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신체적 자존감이 남학생의 신체적 자존감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Wright, 1989), 외모지상주의 내면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김윤,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건강을 위협하는 신체 변화 전략을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형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현정숙, 2007).

청소년들에게 신체이미지는 자아발달에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문화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아의 역동적 구조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며(이재창, 1994), 신체이미지가 신체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유인애, 2011).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거부, 자기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송인섭, 1998),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심희옥, 1998).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약물남용, 우울증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탁영란·이은영, 2004).

본 연구에서 파악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는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으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외모중심사회의 내면화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미 내면화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하위변인 구성요인들이 통합되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또래에 사회적 압박의 형태 내면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또래들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학적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인 또래에 의한 사회적 압박이 성별에 따라 내면화의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별에 따른 주변인에 의한 사회적 압박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외모만족도에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성별을 고려한 지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한 각 변인들 간의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의 세 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차이와 경제적 차이, 교육적 수준을 고려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등 학교유형도 확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기의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광범위한 대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상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를 통한 청소년기 단계에 따른 특성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대부분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압박에 의한 외모

만족도와 관련성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주변인 또래와 부모에 의한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타당성 높은 연구로 생각된다. 또한 외모관련 사회적 압박의 형태를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와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한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 관련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건강한 외모관리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보건학적 접근과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정, 정은미. 그룹 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3;41(11):172-87.
- 고애란, 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96;20(4):667-81.
- 김경아.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김경연.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993;6(1):37-50.
- 김들련. 여고생들의 체형인식 차이에 따른 식생활 행동과 심리상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마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김복란, 김윤선. 원주지역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식 행동과 신체만족도 및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10; 39(9): 1295-304.
- 김수지. 생활무용 참여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김소영.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김세리. 외식산업 종사원의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과 소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7;7(12):145-56.
- 김유경. 도시 및 농촌 고등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식습관, 생활습관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양진. 유행 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92;16(2):51-63.
- 김 윤.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 김은경.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김은정.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실태와 이상 섭식행동 관련 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은혜. 대상화 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2.
- 김애경.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01;22(3):271-85.
- 김애경.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의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연구 2003;10(3):351-72.
- 김정민, 한근희. 대중매체, 타인과의 외모비교 및 신체질량지수가 여고생 및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8; 26(3): 65-77.
- 김정선.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김정순, 김영남. 남녀중학생의 체형인식 및 식생활 태도와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09;21(1):123-39.
- 김지연. 청소년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태도, 식 행동 관

- 련요인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지은. 중학생의 체중군 별 체중인식 식 행동 및 체중조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김재숙, 이미숙.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01;25(5):957-68.
- 김충기, 김현옥.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1989;8(1):143-50.
- 김태신, 김춘경, 여인숙. 정서, 행동장애연구: 시설아동의 애착경험과 자아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12;28(4):381-402.
- 김현숙.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 논문]. 전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김희화. 청소년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2;40(9):47-61.
- 김희화, 김경연. 개인전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998;36(2):47-60.
- 김희화, 김경연.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0;38(5):15-24.
- 남궁미자. 서울 일부지역 여자중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식 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남윤자, 박재경.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99;89:601-9.
- 노영경. 체형 만족도와 섭식장애 및 자존감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노혜정, 김은이.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남자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인식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지 2011;55(5):340-65.
- 류호경. 청년기 여성의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05;16(4):83-93.
- 류호경, 윤진. 청년기 여성의 체형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999;4(4):554-60.
- 문승완.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서울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08.
- 문현선.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 청소년 연구 1984;16(2):286.
- 박선영, 도현심.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98;19(1):229-44.
- 박수정, 손정락. 인지 행동치료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여대생의 신체상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02; 7(3):335-51.
- 박영애, 정옥분.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996;17(1):189-212.
- 박진경, 도현심.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1;39(12):129-40.
- 백인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성형태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 자기애의 매개효과와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13.
- 서봉연.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1975.
- 서윤경.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 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설현진.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2010.
- 손병환, 유승구, 박경자.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학상담연구. 1994;5(1):97-125.
- 손용철. 여중생의 자아개념과 지각향상에 미치는 인간관계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1987.
- 손원숙.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손환희, 윤종희.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90;11(1):58-71.
- 송미현.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송선미.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3;26(1):1-12.
- 송인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파주: 양서원, 1989.
-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1998.
- 송현중.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규인 모형의 인과적 분석[박사학위 논문]. 전남: 전남대학교; 1993.
- 신미영.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석사학위 논문]. 강원: 강원대학교; 1997.
- 신종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1990.
- 신효정.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연구 : 화장, 헤어스타일[박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심희옥.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997;36(6):133-44.
- 안나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2007.
- 양원경. 또래 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 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99.
- 양종국, 김충기. 비행 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2002; 10(2): 101-21.
- 오송남.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남원: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옥경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광주대학교학생 생활연구소 1995;2:1-15.
- 옥경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친구의 평가 간 관계 연구. 광주대학교학생 생활연구소 1997;4:23-44.
- 용현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원주: 상지대학교; 2009.
- 유인애.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심리적 행복감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2011.
- 윤만수, 강진홍. 스포츠 활동 참가가 중,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00;14(1):173-83.
- 윤성준. 미용성형서비스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적 가치와 매체노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연구 2013;13(2):11-20.
- 윤진.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개발원, 1993
- 윤태일, 이명천. 텔레비전 시청이 육체이미지 혼란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

- 회지 2002;16(3):331-63.
- 이경희, 이규미.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2012;13(3):1537-61.
- 이경님.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2;40(8):191-206.
- 이경숙. 일부 지역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03.
- 이계원. 청년기의 신체만족도가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회지 1993;31:15-27.
- 이미령.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예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이미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2005; 16(2):263-93.
- 이미리. 청소년 행복감 수준과 일상생활경험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003;45(1):26-34.
- 이미숙.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2000.
- 이미영, 최미혜, 정연강, 허은희. 중년기 성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9;10(1):140-53.
- 이미자. 비만아동의 신체상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관계[석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2004.
- 이미현. 신체 이미지에 대한 실태조사. 복식문화연구 2008;16(3):588-94.
- 이상선, 오경자. 우울집단과 사회불안집단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통제처리 및 자동처리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2003;22(1):17-32.

- 이소영. 중학생의 비만도와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석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2012.
- 이송자, 곽인숙, 이수정. 연구논문: 남, 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4;6(4):467-74.
-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2004;18(3):1-13.
- 이숙, 최정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 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3;41(2):31-42.
- 이순재. 아동이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이요원, 임양순. 중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 조절태도-강원도 영월군을 중심으로-(The recognition of body shape and the attitude toward weight control of middle school students).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98;10(1):17-27.
- 이윤정. 보문: 신체 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04;28(7):974-82.
- 이은진. 구조화된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분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04;13(3):354-61.
- 이정순, 한경희. 연구논문(研究論文):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2008;12(2):153-64.
- 이지은, 이일하. 여자 중학생의 섭식장애 패턴 분류와 이에 따른 체형 인식.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06;17(2):89-103.
- 이정은. 미용성형부위 및 의복행동그룹에 따른 의복스타일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2013.
- 이재창, 임용자. 사춘기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연구의 생물학적 접근 모형. 인

- 문과학 1994;12(2):173-200.
- 이현림, 최현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연구 2003;10(3):291-308.
- 이혜경. 여대생의 미용성형 경험 유무에 따라 미용성형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3;14(1):285-93.
- 이희정, 최미례, 구재옥. 여고생의 체형에 따른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및 식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5;10(6):805-13.
- 원영희.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과 관계[석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 교육대학원; 1990.
- 장미선.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석사학위논문]. 무안: 목포대학교; 2003.
- 장선철, 송미현. 연구논문(研究論文):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04;11(3):115-33.
- 장휘순.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 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998;11(1)110-2.
- 장희순, 김태련.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身體像)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06;17(2):57-83.
- 전준선.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2006.
- 정미영, 김선호, 오정숙.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체형 인식에 따른 비만관련 생활행태 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 2013;11(6):1109-15.
- 정선영, 김옥수. 병원간호사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에 관한 구조 모형. 성인간호학회지 2012;24(2):119-29.
- 정원식. 자아개념,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68
- 정옥분, 박연정, 김경은.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

- 계. 인간발달학회 2006;13(1):35-60.
- 조강욱, 김연수. 한국 청소년의 규칙적 운동 유무에 따른 신체발달과 식사의 질 평가 :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010;18(2):137-44.
- 조미라.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조미라. 초등학생 남녀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또래관계, 자존감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조선명, 고애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01;25(7):1227-38.
- 조성아.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조아라, 이장한. 성차에 따른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13;18(1):106-20.
- 조윤경, 김은미. 미디어 이용과 대인 간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2008;52(5):255-74.
- 조은아. 남·녀 중·고등학생의 체 성분 분석에 따른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2013.
- 조지숙.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1992.
- 주경숙.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다요인 인성검사와의 관련성 탐색[석사학위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최미경, 도현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000;21(3):85-92.

- 최민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비합리적 신념 및 외모만족도간의 관계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 최보가, 진귀연.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1992;1- 15.
- 최선영. 고등학생의 체형과 체형인식도에 따른 성격유형(MBTI)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용인: 용인대학교 재활보건과학대학원; 2005.
- 최은영, 최인령.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2002;15(1):63-72.
- 최정미, 김미란.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연구 2003;10(3):373-94.
- 최해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999;11(2):183-97.
- 탁영란, 이은영.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건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2004;10(1):89-97.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과 성인의성의식변화연구, 2001.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학술심포지엄 2005;16:127-129.
- 한상철. 연구논문(研究論文): 청소년 심리; 청소년기의 위험행동-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98;5(3):45-62.
- 한중혜.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방법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1996.
- 허영미, 박현주.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비만이 주관적 건강상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012;14(3):203-11.
- 허은실, 강현진, 이경혜. 일부 청소년의 체중조절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중요도, 신체적 특성과 체형에 대한 인

- 식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3;8(5):658-66.
- 현정숙.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2007.
- 현희순, 김양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1999;20(1): 249-62.
- 홍금희.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06;30(2):348-57.
- 홍금희.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6;8:48-54.
- 홍병숙, 백인선, 이은진, 박성희. 미디어 및 외모 관심도가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07;31:3624-32.
- 홍성훈, 도현심.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002;40(12):145-57.
- 홍수남, 김효숙. 20-40대 여성의 외모만족도가 미용관리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12;10:829-36.
- 홍종필, 이시연. 잡지 속의 신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노출이 20대 여성의 기분과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그리고 문화 2005;4:72-118.
- 홍찬의, 홍성완, 정철주, 이동진, 최광해. 울산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의 자기 체형에 대한 인식 및 불만족도에 대한 조사. 영남의대학술지 2008;25(2): 92-101.
- 황윤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2007.
- Abell SC, y Richards MH.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hap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 investigation of gender and class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96;25:691-703.

- Andrews B, Brown GW. Self-esteem and vulner ability to depression : the concurrent validity of interview and questionnaire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3;102(4):565-72.
- Aspinwqll LG, Staudinger UM.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Atwater E. Adolescence. Third ed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2.
-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7.
- Barocas R, Karoly P.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n social responsiveness. *Psychology Reports* 1972;31:772-81.
- Beck AT, Rush AJ, Shaw BF, Emery G.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1979.
- Berg PV, Paxton SJ, Keery H, Wall M, Guo J, Neumark-Sztainer D.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comparison with media images in males and females. *Body Image* 2007;4:257-68.
- Branden N. The Power of Self-Esteem. New Jersey: Barnes & Noble Books, 1992.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Brown JD, Mankowski TA. Self 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3;64(3):421-30.
- Carlson JD. Body image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04;40:823-35.
- Cash TF, Aprusinsky T.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 New York City: The Guilford Press, 1990.
- Chan DW, Lee HB. Dimensions of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chinese adolescent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993;22(4):425-40.
- Cicchetti D, Toth SL.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s* 1998;53(2):221-4.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1967.
- Coopersmith S.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1968;2.
- Crandall R.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and related constructs,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Revised edition. Ann Arbor: ISR, 1973.
- Daly MJ, Burton RL.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3;30(3):361-6.
- Davison TE, McCabe MP.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body image and their psychological, social, and sexual functioning. *Sex Roles* 2005;52:463-75.
- Durkin SJ, Paxton SJ. Predictors of vulner ability to reduced body imag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sponse to exposure to idealized female media image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matic Research* 2002;53:995-1005.
- Elkind D, Winer IB.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Wiley, 1978.
- Erikson E. *psychosocial stages*. 1950, 1963.
- Farrell MP, Barnes GM.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 Marriage and the Family 1993;55(1):119-32.
- Felker DW.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 Festinger L.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1954;7:117-40.
- Frost J, McKelvie S.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2004;51(1-2):45-54.
- Gecas V, Schwalbe ML.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6;48(37):37-46.
- Gecas V, Seff MA. Social class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centrality, compensation and the relative effects of work and hom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90;53(2):165-73.
- Groesz LM, Levine MP, Murnen SK.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02;31(1):1-16.
- Haase, AM. Weight perception in female athletes :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correlates and behavior. Eating Behaviors 2011;12(1):64-7.
- Harrison K, Cantor J.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1997;47(1):40-67.
- Harter S, Buddin BJ.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23(3):388-99.
- Harter S.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lenum Series in Social Clinical Psychology 1993;87-116.

- Harter S.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Plenum Press, 1993.
- Heinberg LJ, Thompson JK. Social comparison : Gender, target, importance ratings and relation to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992;7:335 - 44.
- Helfert S, Warschburger P. A prospective study on the impact of peer and parental pressure on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Body Image* 2011;8(2):101-9.
- Horowitz LM. Self-derogations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61(1):68-79.
- Herderson-King D, Herderson-King 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005;2:137-49.
- Iso-Ahola SE, Crowley ED.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leisure boredo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91;23(3):260-71.
- Jacobvitz DB, Bush NF. Reconstruc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 parent - child alliance, personal distress, and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996;32(4):732-42.
- James W. *Classic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Digireads com, 1890.
- Kernis MH, Grannemann BD, Barclay LC.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9;56(6):1013-23.
- Kernis MH, Grannemann BD, Mathis LC.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 esteem and depress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61(1):80-4.
- Kim HH, Kim SJ.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2):337-47.
- Kling KC, Hyde JS, Showers CJ, Buswell BN.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999; 125(4):470-500.
- Kostanski M, Gullone E.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 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98;39(2):255-62.
- Larsen RJ, Ketelaar T.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61(1):132-40.
- Lee ES.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1;49(6):47-56.
- Levine MP, Smolak L.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eating disor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prevention, and treatm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6.
- Lorenzen LA, Grieve FG, Thomas A. Exposure to muscular male models decreases men's body satisfaction. *Sex Roles* 2004;51:743-8.
- Mahoney ER, Finch MD. The dimensionality of body-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1976;92:270-7.
- Mann MM, Hosman CM, Schaalma HP, de Vries NK. Self-esteem in a broad 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Health Education Research* 2004;19(4):357-72.

- McCormick CB, Kennedy JH. Parent - 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94;23(1):1-18.
- McWhirter BT. Loneliness,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7;75:460-9.
- Mendelson BK, McLaren L, Gauvin L, Steiger H.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body esteem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02;31:318-23.
- Mike F. Body image and affect in consumer culture. *Body & Society* 2010;16(1):193-221.
- Morrison TG, Kalin R, Morrison MA. Body image evaluation and body image investment among adolescents : A test of sociocultural and social comparison theories. *Adolescence* 2004;39:571-92.
- Murphy G. *Personality : A biosocial approach to origins and structur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 Moretti MM, Higgins ET. Relating self-discrepancy to self-esteem : the contribution of discrepancy beyond actual self rat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90;26:108-23.
- Neumark-Sztainer D, Paxton SJ, Hannan PJ, Haines J, Story M. Does body satisfaction matter? five-year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health behaviors in adolescent females and 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6;39(2):244-51.
- Nottleman ED.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87;23:441-50.
- O'Brien KS, Hunter JA, Halberstadt J, Anderson J. Body image and explicit

- and implicit anti-fat attitudes : The mediating role of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s. *Science Direct Body Image* 2007;4:249 - 56.
- Page RM. High school size as a factor in adolescent loneliness: *The High School Journal*.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 Page RM, Suwanteerangkul J. Dieting among thai adolescents: Having friends who diet and pressure to diet.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2007; 12(3):114-24.
- Paterson J, Pryor J, Field J. Adolescent at the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 spectr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95;24(3):365-76.
- Pawlak JL, Klein HA. Parental conflict and self-esteem : The rest of the story. *Journal of Generic Psychology* 1997;158(3):303-13.
- Ransom DC, Fisher L. An Empirically derived type of families : relationships with adolescent health. *Family Process* 1995;34:183-97.
- Richins ML. Social comparison, advertising, and consumer discont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95;38:593 - 607.
- Roberts JE, Gotlib IH, Kassel JD.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 310-20.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Rosenberg M.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d*. New York: Robert L. Leahy, Academic

- Press, 1985.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9;54:1004-18.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1979.
- Rosenblum GD, Lewis M. The relations among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ma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1999;70(1):50-64.
- Seal BN, Bradford A, Meston CM.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esteem and sexual desire among college wom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009;38(5):866-72.
- Secord PF, Jourard SM.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3;17:343-7.
- Shisslak CM, Renger R, Sharpe T, Crago M, McKnight KM, Gray N, Bryson S, Estes LS, Parnaby OG, Killen J, Taylor CB.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McKnight Risk Factor Survey for assessing potent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disordered eating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99;25:195-214.
- Sinclair S, Hardin CD, Lowery BS. Self-stereotyping in the context of multiple social ident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6;90:529-42.
- Sturkie K, Flanzer JP.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families of maltreated adolescents. *Social Work* 1987;32(6):491-6.

- Steinberg L. Adolescence. New York: McGraw-Hill Inc. 1993.
- Stowers DA, Durm MW. Does self-concept depend on body image? A gender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1996;78(2):643-6.
- Tafarodi RW, Swann Jr WB.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95;65(2):322-42.
- Tesser A. Self-esteem maintenance in family dynam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1980;39(1):77-91.
- Tice DM, Baumeister RF. Controlling anger: Self-induced emotion change. In D. M. Wegner & J. W. Pennebaker(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pp. 393-409).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93.
- Whisman MA, Kwon P. Life stress and dysphoria : The role of self-esteem and hop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3;65(5):1054-60.
- Wylie RC. *The self-concept*. Revised edition. Lincoln Nebraska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4.

## 부록

귀하는 신체상(身體像),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문지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상 소요 시간은 15-20분입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이 연구와 관련한 추가적 요구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위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나 신체상에 관한 젊은 세대들의 태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는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설문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면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이 설문지를 회수할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설문을 끝낼 때까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IRB는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전화번호: 02) 2228-1506

또는 연구 책임자(김희진)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메일: heejink@yuhs.ac  
전화번호: 02) 2228-1531

더불어 이 연구에 대해 귀하의 학교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는 이 연구가 귀하의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였습니다.

설문을 마친다는 건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전제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첨부된 설문을 마치셨다면 교실 앞에 마련된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 일반사항

● 해당사항에 V 표시 하세요.

1. 학교 이름: \_\_\_\_\_ 나이: 만\_\_\_\_\_세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① 현재 키: \_\_\_\_\_cm ② 현재 몸무게: \_\_\_\_\_kg
5. 지난 3개월 간,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날은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었습니까?  
① 0(없음) ② 1-2일 ③ 3-4일 ④ 5-7일

## II. 체형인식 및 만족도 검사지

1.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다이어트를 하셨습니까?  
(다이어트란, 귀하의 식습관을 변화시켜 몸무게를 줄이는 걸 말합니다)  
① 안함 ② 1~4번 ③ 5~10번 ④ 10번 이상 ⑤ 나는 항상 다이어트 중이다
2. 지난 30일 동안, 살을 빼기 위해 혹은 살찌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ㄱ. 24시간 혹은 그 이상 금식 ① 아니오 ② 예  
ㄴ. 음식 섭취량과 칼로리를 줄임 ① 아니오 ② 예  
ㄷ. 의사의 조언 없이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 ① 아니오 ② 예  
ㄹ. 포함 ① 아니오 ② 예  
ㅁ. 변비약을 섭취 ① 아니오 ② 예  
ㅂ. 운동 ① 아니오 ② 예  
ㅅ. 다이어트 ① 아니오 ② 예
3. 현재 자신의 몸무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현재 자신의 체형은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① 너무 날씬하다 ② 조금 날씬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뚱뚱하다 ⑤ 너무 뚱뚱하다
5. 현재 자신의 몸무게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저체중 ② 약간 저체중 ③ 보통 체중 ④ 약간 과체중 ⑤ 매우 과체중
6. 단 한 번이라도 폭식, 즉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귀하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답에 원을 그려주십시오. 전혀 아님=1, 가끔=2, 자주=3, 매우 자주=4	전혀 아님 =1	가끔 =2	자주 =3	매우 자주 =4
과거에 귀하는 얼마나 자주.....				
17. 친구들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1	2	3	4
18. 항상 매력적으로 보여야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1	2	3	4
19. 귀하의 체중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있어 다르게 만든다고 느꼈습니까?	1	2	3	4
20.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과 자신의 몸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1.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보이길 원하는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2. 드라마를 보았습니까?	1	2	3	4
23. 영화를 보았습니까?	1	2	3	4
24.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까?	1	2	3	4
25. 영화나 드라마 속 영화배우의 외모를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1	2	3	4
26. 음악가 혹은 TV 속 가수의 외모를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1	2	3	4
27. 귀하의 얼굴모습을 바꾸기 위해 심미적 성형수술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8. 귀하의 몸매를 바꾸기 위해 심미적 성형수술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29. 귀하의 피부색을 바꾸기 위해 치료 혹은 상품을 고려했습니까?	1	2	3	4

### Ⅲ. 외모 관련 사회적 압력 설문조사

다음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귀하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관한 것입니다. 몇 몇 질문들이 비슷하더라도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척도를 이용하여 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음=1,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2, 확실하지 않음=3, 대부분 동의=4, 매우 동의=5)

30-45번은 귀하가 아는 사람(친구, 형제 혹은 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답해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 우 동의 =5
30. 외모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학급의 일부가 될 수 없다.	1	2	3	4	5
31.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회에 속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32. 내가 잘 생기거나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래들은 나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	2	3	4	5
33. 친구들에겐 가끔 외모가 전부일 때가 있다.	1	2	3	4	5
34. 나는 내 외모 때문에 또래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5. 학교에서 잘 생기거나 예쁜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2	3	4	5
36. 내 외모에 대해 뒷 담화 하는 십대들이 항상 있다.	1	2	3	4	5
37. 우리 학교에서 잘 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외부인처럼 여겨진다.	1	2	3	4	5
38. 내 친구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1	2	3	4	5
39. 내 외모 때문에 또래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다.	1	2	3	4	5
40. 내가 만약 더 나은 외모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의 모임에 더 자주 초대했을 것이다.	1	2	3	4	5
41. 나의 외모가 별로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일어날 수 없다.	1	2	3	4	5
42.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 좋은 외모를 만들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1	2	3	4	5
43. 학급 친구들은 체육시간에 나를 비웃는다.	1	2	3	4	5
44. 다른 또래들은 내 외모 때문에 나에게 별명들을 붙여준다.	1	2	3	4	5
45. 내 몇몇 친구들은 더 잘생기고 예뻐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1	2	3	4	5

46-72번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 우 동의 =5
46. 나의 가족은 좋은 몸매에 큰 가치를 둔다.	1	2	3	4	5
47. 어머니는 내 몸매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별명들을 말한다.	1	2	3	4	5
48. 아버지는 내 몸매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별명들을 말한다.	1	2	3	4	5
49. 부모님은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0. 어머니는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1	2	3	4	5
51. 아버지는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1	2	3	4	5
52. 만약 나의 외모가 좋으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허락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53. 내 몸매 때문에 나는 어머니로부터 눈치를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54. 내 몸매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눈치를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55. 어머니는 좋은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6. 아버지는 좋은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7. 어머니는 더 예쁘게 보이시려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	1	2	3	4	5
58. 아버지는 더 멋있게 보이시려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	1	2	3	4	5
59. 어머니는 나의 몸매를 놀린다.	1	2	3	4	5
60. 아버지는 나의 몸매를 놀린다.	1	2	3	4	5

46-72번은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1	대 부분 동의 하지 않음 =2	확실 하지 않음 =3	대 부분 동의 =4	매우 동의 =5
61. 어머니는 나의 몸매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2. 아버지는 나의 몸매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3. 나의 외모가 좋을때만 부모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	1	2	3	4	5
64. 어머니께서 나의 몸매에 불만을 표한다.	1	2	3	4	5
65. 아버지께서 나의 몸매에 불만을 표한다.	1	2	3	4	5
66. 나의 외모가 별로여서 어머니는 더욱 엄격하시다.	1	2	3	4	5
67. 나의 외모가 별로여서 아버지는 더욱 엄격하시다.	1	2	3	4	5
68. 어머니께서는 나를 더욱 나 자신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다.	1	2	3	4	5
69. 아버지께서는 나를 더욱 나 자신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다.	1	2	3	4	5
70. 나의 외모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1	2	3	4	5
71. 어머니께서 내 몸매에 대해 무언가를 하라고 충고 하신다.	1	2	3	4	5
72. 아버지께서 내 몸매에 대해 무언가를 하라고 충고 하신다.	1	2	3	4	5

#### IV. 신체부위 만족도

아래는 신체기관에 대한 목록입니다. 각 신체 부위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는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모든 항목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함					
	1	2	3	4	5	6	1	2	3	4	5	6
73. 키	1	2	3	4	5	6						
74. 체중	1	2	3	4	5	6						
75. 모발	1	2	3	4	5	6						
76. 외모	1	2	3	4	5	6						
77. 전체 얼굴상	1	2	3	4	5	6						
78. 눈	1	2	3	4	5	6						
79. 코	1	2	3	4	5	6						
80. 치아	1	2	3	4	5	6						
81. 어깨	1	2	3	4	5	6						
82. 팔	1	2	3	4	5	6						
83. 배	1	2	3	4	5	6						
84. 가슴	1	2	3	4	5	6						
85. 등	1	2	3	4	5	6						
86. 엉덩이	1	2	3	4	5	6						
87. 다리	1	2	3	4	5	6						
88. 근육	1	2	3	4	5	6						
89. 귀하의 신체 사이즈와 몸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	2	3	4	5	6						

## V. 성형수술 경험 설문조사

아래는 성형수술 경험에 대한 목록입니다. 모든 항목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

90. 성형수술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1, 한 군데=2, 두 군데=3, 세 군데 이상=4)	1	2	3	4
*91-92.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91.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다면 수술 후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없음=1, 한 번=2, 두 번=3, 세 번 이상=4)	1	2	3	4
92. 성형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외모에 대한 만족감에 변화가 있습니까?(수술 후 더 나빠졌다=1, 그대로이다=2, 조금 좋아졌다=3, 많이 좋아졌다=4)	1	2	3	4

## V. 자아존중감 설문조사

\*Rosenberg self-esteem scale(RES)

아래는 자기인식에 대한 목록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에 원을 그려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2      3      4			
93.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94. 나는 내가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95.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96.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1	2	3	4
97.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할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1	2	3	4
9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99.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100.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10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102.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 ABSTRACT

### Appearance-Relate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Hyun-Ji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Currently, owing to lookism based on cultural norm admiring thin shape, bodily shape identity, and self-recognition and evaluation, the Korean society becomes a appearance-admiring society. Such a looks-focused social atmosphere leads Korean adolescents to adopt 'health-threatening body-changing strategy' when they have concerns about, or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s. Their desire to improve their looks is very strong.

Adolescence is the period when people develop values, attitudes, and functions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the four socialization elements – mass media, parents, peer group, and school – adolescents learn social standards of appearance, and importance of it, and develop

their values on it. Thus, this research tried to examine forms of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by those near adolescents such as peers and par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To create data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o three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first grade to the third grade located in Seoul.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related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perception on body shape, and satisfaction with it,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body parts, and self-esteem. Excluding thos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here respondents were not sincere in answering questions, and did not answer some questions, 1,000 copies were finally used in the analysis. The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AS 9.2 version.

First, to examine differences of answers depending on gender, t-test was done. Secon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hird,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among respon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difference among male and female respondents in the extent of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Especially, attitude on plastic surgery scored 92.42% among female students.

Seco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uch a social pressur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female students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bove the middle levels,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positive evaluation of their appearance is positively related with self-esteem, and negative evaluation of their appeara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self-esteem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ird, it was found among female respondents that the higher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is, the lower their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gets, and that those who have taken diet medicines tend to have lower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was very significantly related with negative self-estee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e followings. Lookism is more influential to female students than to male students. And, females are more positive to plastic surgery, and more sensitive to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Consequent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seems desirable to prepare for concrete, systematic guidance, education, intervention, and counter-measures designed to reduce social pressure from peer group, and rais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nd self-esteem.

---

**Key words:** appearance-related social pressure,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